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EFFECTS OF EVAGELISM MINISTRY ON CHURCH GROWT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KWANGMYUNG CHURCH

written by

TAE GUN KIM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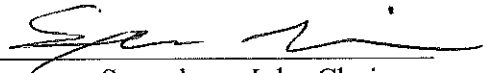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Sunil Kim


Seungkeun John Choi


Jin Ki Hwang

August 15, 2015

**EFFECTS OF EVANGELISM MINISTRY ON CHURCH
GROWT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KWANGMYUNG CHURCH**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TAE GUN KIM

AUGUST 2015

전도 사역이 교회 부흥에 미치는 영향
- 광명교회를 중심으로 -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김 선 일 교수

김 태 근

2015년 8월

Abstract

Effects of Evangelism Ministry on Church Growt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KwangMyung Church

Tae Gun Kim

Doctor of Ministry

2015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is ministry focu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evangelism ministry and church growt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KwangMyung Church in the Uijeongbu area, and demonstrates the effects of evangelism on this church's growth.

This ministry focus paper consists of six chapters. Following the introductory chapter, chapter 2 establishes a sound biblical and theological understanding of evangelism by surveying the definition, purposes, importance, and necessity of evangelism. Since the church is a community for evangelizing people, this chapter argues that members of the church must be trained personally and communally to be evangelists. Chapter 3 discusses the inseparable relationship between evangelism and church growth. After defining the church in terms of the nature and purpose of the church, this chapter explores a biblical concept of church growth by looking in the New Testament at the Jerusalem church, the Samaritan church, and the Antioch church. In doing so, this chapter emphasizes how crucial evangelism is for church growth.

Chapter 4 describes the history, background, pastoral philosophy, vision, and current state of the KwangMyung Church, after surveying the Uijeongbu area where the church is located, especially focusing on the area's cultural and religious characteristics. Chapter 5 then introduces the KwangMyung Church's evangelism

ministry. It describes the church's various methods of evangelism and principles behind them, and then shows how the church's evangelism ministry has affected the church's growth. The chapter also acknowledges the limits of the church's current evangelism ministry and suggests ways for improving and extending the KwangMyung Church's evangelism ministry. Chapter 6 concludes this ministry focus paper by summarizing the study.

Theological Mentors: Sunil Kim, Ph. D.

Seungkeun John Choi, Ph. D.

Jin Ki Hwang, Ph. D

감사의 말씀

바쁜 목회생활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학문적인 일과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선 본 논문의 동기를 제공해주고 목회의 소중함과 기쁨을 알게 해준 광명교회 최남수 목사님과 당회원들, 그리고 모든 동역자와 교우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목회 초년병시절에 목양의 일념에 대한 세심한 가르침을 주신 수영로교회 정필도 원로목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고 친절하게 지도해 주시고 논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지도교수 김선일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심으로 수고하신 최승근 박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풀러 목회학 박사원 원장, 전 김세윤 교수님, 황진기 원장님과 전 총장 Dr. Richard Mouw, 현 총장 Dr. Mark Labberton 두 분의 귀한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모든 학사일정 및 논문에 이르기까지 큰 격려와 도움을 주신 김태석 목사님과 언제나 친절하게 잘 섬겨주신 풀러 사무실 직원들에게도 진정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더욱이 지금까지 부족한 사람이 목회자가 되기까지 희생과 눈물로 기도 해주셨고, 이 논문을 쓰는 동안에 교회를 위해서 또한 논문의 완성을 위해서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기도해 주신 부모님과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두 분의 누님 가정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옆에서 기도와 격려로 목회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아내 김신혜 사모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아빠의 지속적인 학문의 배움을 지켜보면서 언제나 좋은 모습으로 지켜봐준 사랑스러운 큰 딸 수빈이와 작은 딸 세빈에게도 아빠의 사랑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드립니다.

2015년 8월 김태근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 동기와 목적	1
제 2 절 연구 방법과 개요	3
제 2 장 전도의 이해	5
제 1 절 전도의 정의와 당위성	5
1. 성경적 정의	5
가. 전도의 어원 정의	5
나. 전도의 용어들	7
2. 전도의 당위성	11
가. 세속화되는 신앙관 탈피	13
나. 교회 성장 지상주의 극복	14
제 2 절 전도의 동기와 목적	16
1. 전도의 동기	16
가. 하나님 사랑	17
나. 이웃 사랑	19
다. 구원에 대한 감사	20
라. 모든 신자들의 책무	21
2. 전도의 목적	21
가. 영혼 구원	21
나. 하나님 나라의 구현	22
다. 하나님의 영광	23
제 3 절 전도 훈련의 필요성과 유익성	24
1. 전도 훈련의 필요성	24
가. 전교인의 전도 훈련	24

나. 개인의 전도 훈련	26
2. 전도 훈련의 유익성	28
가. 건강한 교회 성장	30
나. 개인의 영적 성장	36
제 3 장 전도를 통한 교회성장을 이룬 지역교회 사례 연구	34
제 1 절 수영로교회 사례 연구	34
1. 교회 소개	34
2. 전도 사역	35
가. 총력 전도시대	35
나. 사랑방 전도축제	36
3. 평가	37
제 2 절 포도원교회 사례 연구	37
1. 교회 소개	38
2. 전도 사역	38
3. 평가	39
제 3 절 주안장로교회 사례 연구	40
1. 교회 소개	40
2. 전도 사역	41
3. 평 가	41
제 4 장 광명교회 지역 분석 및 목회 현황	43
제 1 절 의정부시의 지역 분석	43
1. 지리적 상황	43
2. 지역 현황 및 인구동향	44
3. 의정부시의 영적인 상황	48
제 2 절 광명교회 역사적 배경	50
1. 광명교회 설립	50

2. 광명교회 성장	51
가. 교회 설립과 개척기(1992-1994)	52
나. 전도와 성장기(1995-2006)	52
다. 성장과 부흥기(2007-2011)	54
라. 부흥과 제도약기(2012-)	56
제 3 절 광명교회 목회 현황	56
1. 광명교회 목회 철학	56
가. 기도 중심의 교회	57
나. 말씀 중심의 교회	59
다. 전도와 선교 중심의 교회	61
라. 목양 중심의 교회	63
2. 광명교회 목회 비전	64
가. 경기 북부지역의 복음화	64
나. 민족 복음화	65
다. 세계 복음화	65
제 5 장 광명교회의 전도의 실제	67
제 1 절 광명교회 전도 집회	67
1. 광명교회 전도 집회의 방향성	67
가. 불신자에게 초점을 맞춘 전도	69
나. 관계를 통한 전도	69
다. 소그룹 중심의 전도	71
라. 전 교인의 영적성숙을 위한 전도	71
2. 광명교회의 전도의 차별성	72
가. 광명교회는 막연하게 전도하지 않는다	73
나. 광명교회는 특정한 사람만 전도에 참여하지 않는다	73
다. 광명교회는 다른 교회 성도를 데려오지 않는다	74
라. 광명교회는 젊은 층의 전도대상자들이 많다	75

마. 광명교회는 일회성 전도행사로 끝나지 않는다	75
제 2 절 광명교회 전도 집회의 유익	76
1. 질적 성장	76
2. 양적 성장	77
제 3 절 광명교회 전도 집회의 준비와 진행	79
1. 사전 준비	79
가. 목표 및 주제 정하기	80
나. 강사 선정하기	80
2. 전도 집회의 실제	81
가. 개요	81
나. 업무 담당	83
다. 전체 세부 일정 사항	84
라. 예산	86
마. 결과	86
제 4 절 기타 전도 방법	86
1. 축호 전도	87
2. 아파트 전도	87
3. 노방 전도	88
4. 커피, 차 전도	88
5. 목걸이 전도	88
6. 외침 전도	89
7. 동서남북 전도	89
8. 병원 전도	89
9. 충동원 전도	89
제 5 절 광명교회 전도의 문제 분석	90
1. 전문적인 전도 담당자 부재	90
2. 전도 자료 정리의 부재	90
3. 전도 후의 정착 관리 부재	91

4. 전도 훈련의 부재	92
5. 편중된 총동원 전도	92
제 6 절 광명교회 전도의 새로운 방향성 제시	93
1. 지속적인 전도훈련	93
2. 지속적인 전도의 후속 관리	95
제 6 장 결론	97
참고 문헌	106
Vita	110

표 목 차

<표 1> 성별 연령별 통계	45
<표 2> 2014년도 의정부시 행정동별 인구 현황	46
<표 3> 2015년도 의정부 연령대별 인구수 비율	47
<표 4> 2013년도 의정부 시민의 종교 성향 조사	49
<표 5> 광명교회 연도별 교인수	51
<표 6> 연도별 세 가족 등록 현황	68
<표 7> 개인별 오이코스 작성카드	70
<표 8> 전도축제 각 분야별 주요 업무	83
<표 9> 전도축제의 세부 일정사항	84
<표 10> 전도 축제 예산 및 결산표	85
<표 11> 2010년도 교구별 세 가족 등록현황	86
<표 12> 의정부시 주택 유형 및 점유형태 현황	87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동기와 목적

한국 교회는 지난 1세기 동안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없는 놀라운 성장을 하였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한국교회는 세계 제일의 대형교회들이 세워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1960년 이후 급속히 성장하던 한국교회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교회 성장이 점차 둔화되고 정지 상태이다. 한국교회는 수적으로 정체 내지는 감소 상태에 있어 교회 지도자들이 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전 총신대 교수였던 권성수는 “한국 교회가 점차 마이너스 성장의 문제가 되는 것에 관하여 한국교회도 유럽교회와 같은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가?”¹⁾하는 말을 하였다.

오늘날 침체된 한국교회의 이슈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놓여 있다. 침체현상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금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하나의 비전을 가져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지상명령의 비전이다. 본 연구자가 사역하였던 의정부 광명교회는 ‘지상명령의 비전’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통하여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되었다.

본 연구자는 광명교회 전도사역에 힘을 얻어 침체되어가는 한국교회들이 다시 힘과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건강한 부흥을 이루어 가기를 원한다. 광명교회의 23년의 역사를 요약한다면 한마디로, ‘살아있는 동안 도전하라’이다. 최남수 목사의 개척목회로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오로지 목양일념으로 23년을 달려왔다. 하나님께서 1992년 상가건물 지하실에서 가족으로 구성된 개척 인원으로 시작하여 2015년 현재 약 8천여 명의 장년성도가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큰 은혜를 주셨다. 의정부라는 도시야

1) 권성수, “한국교회의 성장정체와 대안,” *신학지남* (1998 가을), 38.

말로 복음이 필요한 지역이다. 바로 이런 지역에 1992년에 광명교회가 세워졌다. 하나님께서 광명교회를 계획하여 세우셨으며 축복해 주셨음을 믿는다. 그리고 23년 동안 의정부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 세력들과 싸웠다. 열악한 조건들이 목회를 힘들게 만들고 절망으로 만들었지만 살아있기에 믿음으로 도전하며 23년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게 되었다.²⁾

본 연구자는 광명교회 부교역자로 사역을 하였다. 2009년 1월에 부임하여 2015년 2월까지 지난 6년 동안 목양행정 및 교구목양사역과 함께 양육국, 전도국, 청년국 사역자로 섬겼다.

광명교회가 23년 동안 어떻게 성장하며 부흥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본 연구자는 지난 6년 동안 교회를 섬기며 사역하면서 느낀 교회 성장의 방법 중 하나인 전도를 통한 건강한 전도전략과 훈련과 분석 및 훈련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본 논문에서 살펴볼 것이다. 그래서 전도를 통한 건강한 교회성장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초점은 전도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래서 본 연구자가 섬기는 광명교회 담임목사인 최남수 목사의 목회철학과 비전을 통하여 어떻게 교회가 전도를 통해 부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분석을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상황과 환경 및 여건 등을 파악하여 그 필요에 맞게 광명교회가 시행한 전도의 다양성을 살펴볼 것이며, 동시에 광명교회의 전도의 한계를 점검하여 새로운 전도를 통한 건강한 교회 성장의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한 문제 제기는 전도가 교회의 최고 사명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전할 것인가?’라는 실천 전략이 그 사명에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명의 실천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질 것이다.

첫째, 교회는 왜 전도를 해야 하는가? 어떠한 사역의 근거를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은 그 사역의 지속성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인 과제일 것이다.

둘째, 광명교회 전도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사례 연구를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전도의 철학이 어떻게 구체적인 지역교회와 목회자에게 내면화되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좋은 결과를 냈다는 것에만 주목하기보다, 그러한 결과를

2) 광명교회, *도전하라 광명교회 20주년 역사화보집* (서울: 크리에디브, 2012), 2.

내게 했던 내면의 원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셋째, 광명교회의 전도를 위한 핵심 전략들은 무엇인가? 즉, 전도의 근거와 원리가 어떻게 실제적인 사역으로 표현되었는지를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전도의 사명을 이해하기 위한 문헌연구와 교회 현장에서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전도사역의 분석과 평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리고 본 논문은 교회 성장에 관하여 성경 신학적 연구에 목적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한국교회 전체에 걸쳐 성장사적인 연구를 하려는 것도 아니다. 본 논문은 한국 교회의 전체적인 성장을 갈망하면서도 어디까지나 의정부 광명교회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시간, 지역, 여건, 상황적인 한계를 전제로 두고 시작하게 된다. 주된 초점은 광명교회의 건강한 성장과 그 원리에 두기로 한다.

제 2 절 연구방법과 개요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적인 방법과 함께 광명교회의 현장 전도를 통한 교회 성장의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오늘날 전도에 관한 바르지 못한 이해로 인하여 건강한 교회 부흥과 함께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점점 잃어 가고 있다. 그래서 올바른 전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역교회인 광명교회가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하여 건강한 교회성장을 이루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요는 다음과 같다.

제 1 장은 서론으로, 연구동기와 목적과 연구의 주된 초점이 무엇이며 연구를 위한 문제 제기를 하며 그에 따른 질문과 연구의 한계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시한다.

제 2 장에서는 전도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전도의 정의와 함께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침체원인을 여러 각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한국교회의 마이너스 성장의 저변에는 전도에 대한 이해부족이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전도에 관한 잘못된 세속적인 신앙관을 탈피하며 교회 지상중의를 극복해야만 건강한 부흥을 이룰 수 있다. 그런 후 전도의 동기와 목적을 살펴보면, 전체 교인의 훈련과 개인 영성에 관한 전도 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3 장에서는 전도 사역을 통하여 건강한 교회 성장을 이룬 지역 교회들의 사

레 연구를 통한 전도와 교회 성장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4 장에서는 의정부 광명교회의 지역분석과 목회 현황을 살펴보면서 광명교회의 역사, 배경, 목회철학, 비전을 제시하여 지금까지 교회의 부흥의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제 5 장에서는 광명교회 전도의 실제적인 전도 진행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광명교회만의 전도 차별성과 함께 전도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새로운 전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6 장은 본 논문의 결론 장으로서, 앞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요약하고 몇 가지 제언을 함으로 본 연구를 마무리 할 것이다.

제 2 장

전도의 이해

본 장에서는 전도를 통한 실제적인 교회 부흥 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전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성경적인 정의와 일반적인 전도의 정의를 알아보며, 이어 전도의 동기와 목적에 관하여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의 훈련의 필요성과 훈련을 통하여 얻게 되는 유익은 무엇인가? 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제 1 절 전도의 정의와 당위성

본 절에서는 전도, 곧 전도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도의 성경적인 어원과 용어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전도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날 세속화 되어 있는 신앙의 모습에서 탈피해야 되며 그리고 교회 성장 지상주위를 추구하는 교회들에게 전도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성경적 정의

전도라는 말은 오늘날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이것은 초대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 안에서 정의된 것이다. 따라서 본질에 관한 신학적, 성경적 근거를 찾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교리적인 개념 안에서 전도의 정의를 알아 볼 것이다. 또한 목회의 건강성은 언제나 신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가. 전도의 어원 정의

전도(傳道)를 문자 그대로 풀자면 도(道)를 전(傳)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도(傳道)란 기독교의 도(傳)를 전(道)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기독교의 도(傳)가 무엇이

냐고 묻는다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 사랑, 은혜 등등 많은 유사한 말들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포함한 한 단어가 복음(福音)이라는 단어이다. 이 말은 기독교의 도가 복음인 것을 나타내 주며, 그렇기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이 '전도'가 가지고 있는 문자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전도라는 단어는 도(傳)를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데 초점이 있는 단어이다. 즉, 그 목적이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³⁾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실제로 기독교에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고 전인을 회복시키는 일을 우리나라 언어로 '전도'라고 표현하여 사용하였을 때에도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러한 의미를 잘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도라는 단어를 기독교계에서는 누가 어디서 가장 먼저 사용하였을까? '전도'라는 말을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은 찰스 아담스(Charles Adams)이다. 그는 1850년에 자신의 저서 *19세기 중엽의 복음전도* 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고, 1888년 아서 T. 피어슨(Arthur T. Pierson)이 쓴 *음전도 사역의 원리와 실제* 라는 책에서 다시 사용되었다. 그 후 이 단어는 복음주의적인 문헌에서 널리 사용되어 오고 있다.⁴⁾

전도란 말의 어원은 헬라어 '케리그마(καλῆγμα)'는 "전파하다"는 헬라어 동사 '케루세인(καλῶσιν)'에서 파생된 말로, 전령관(傳令官)으로서 임무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케리그마'란,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곧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말하며(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이신 자신을 전파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선포했다; 눅 4:16-21) 이를 통해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믿음과 순종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마 12:41; 롬 16:25; 고전 2:4; 15:14; 딤후 4:17). 이것은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달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이다.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페커(James Packer)는 *전도란 무엇인가 (Evangelism & The Sovereignty of God)*라는 책에서 전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복음전도는 가르치고, 교육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는

3) R. B. Kuiper, *전도신학 (God Centered Evangelism)*, 박수준 역 (서울: 소망사, 1989), 107.
4) Douglas Porter, *효과적인 복음전도 이렇게 하라 (How to Develop and Use, The Gift of Evangelism)*, 프리셋트 역 (서울: 도서출판 프리셋트, 1996), 16-17.

다. 복음전도는 그 이상의 목표를 지향한다. 다시 말해 복음전도에는 가르친 진리에 대한 반응을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포함된다. 복음을 가르치는 목적은 회심에 있다.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서의 초대가 뒤따라야 한다. 한마디로 복음전도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람들을 얻고, 구원하고, 취하려는 시도다(눅 5:10; 고전 9:19 이하; 벧전 3:1 참조).⁵⁾

이에 대해 복음주의적 전도개념은 가르치고, 교육하고, 지식을 전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목적은 회심하게 하는데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1974년 세계복음화 대회가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대회에서 복음전도의 정의를 채택하였다. 이 대회에서 세계적인 복음 전도 부흥사인 빌리 그레함(Billy Graham)은 복음화 대회의 목표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복음전도에 성실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전도는 하나님이 그의 말씀으로 교회에 두신 “세상의 필요”와 “세계적인 책임”에 대한 하나님의 커다란 청사진이다...하나님의 심장의 고동은 세상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각 나라의 교회들은 의도적으로 복음전도자들과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다른 언어를 숙달하고, 다른 문화를 배우며, 어찌면 평생을 그들 중에서 살도록 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 다수를 복음화해야 한다.⁶⁾

이처럼 세계선교대회를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전도의 용어들

전도의 의미를 가진 용어가 성경에 많이 사용된 예는 많다. 주로 신약성경에서 사용되었지만 구약성경에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날 전도라는 단어가 하나의 단어로만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전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사용된 모든 단어들을 조사하고 어원을 유추해서 전도를 정의한다고 하

5) James Packer, *복음전도란 무엇인가 (Evangelism & The Sovereignty of God)*. 조계광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7), 176.

6) 조은태, *전도학 총론*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137.

는 일은 방대한 일로 지면의 관계상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전도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된 신약성경에서 그 의미를 명백히 담고 있는 몇 가지의 핵심적인 단어만을 조사하여 성경적인 전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신약성경에서는 전도의 의미로서 주로 사용된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이다.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은 “신약성경의 여러 저자들은 다양한 행위를 묘사하기 위해서 40여종의 많은 유사어를 사용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케류소’와 ‘마르τυ레오’ 그리고 ‘유앙겔리온’을 전도의 3대 단어라고 부른다.”⁷⁾라고 하였다.

박영호는 “전도란 말은 복음이란 말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와 ‘복음’은 같은 뜻으로 볼 수 있다.”⁸⁾라고 하였다. 복음전도란 말은 신약에서 나타난 단어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유앙겔리조(Euanggelijo)는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명사가 되면 유앙겔리온(Euanggelion)인데 즉 ‘복음’이란 말이다. 이 낱말의 동사는 ‘복음을 전하다’를 뜻한다. 이것은 신약성경에서 흔히 사용되었고 ‘선전’(propaganda)과 같은 뜻이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15)고 말씀했을 때 이 낱말을 사용했다. 그래서 ‘전도’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말한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선전(propaganda)’과 같은 것이다. 전도자(evangelist)란 이 말에서 시작되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구원의 소식을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 초대교회에서는 초림의 예수님을 증거 하였지만 오늘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재림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어제든 구원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길이 되는 것이다.

케류소(κηρύσσω)라는 말은 예수님과 요한 그리고 초대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 사용되었다. 이 말은 새 번역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모든 곳을 다니시며 유대인들의 회당 안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에 대하여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다.”에서 케루손(κηρύσσων)이 사용되었다. 이 말은 “예고하다”이다. 세례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함으로써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고하고 있다. 세례요한은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7) Michael Green, *초대교회의 복음전도 (Evangelism in the Early Church)*,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8), 77-78.

8) 박영호, *개인전도 핸드북*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83), 19.

예고했다. 앞으로 구원의 시대가 올 것을 전파하고 있다. 여기서 전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말투스(μάρτυς)의 뜻은 '증인(witness)'이다. 이것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할 때, '증인'이라는 말이 말투스이다. 증인은 현장에서 그 모든 것을 생생하게 목격한 사람이다. 그래서 증인은 사실을 증명, 증언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에서 순교자(Martyr)말도 찾게 된다. 순교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증거를 하는 사람이다. 신약성경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복음을 전파와 복음을 증거 하는 일에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생하게 목격한 자들로서 언제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순교자로서의 증인된 삶을 살았다.

마테테스(μαθητής)는 '제자(disciple)'란 뜻이다. 이것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에서 마테투스(μαθητεύσατε)는 동사형으로 사용된 "제자를 삼다"이다. 여기서 '제자를 삼다'라는 말은 "가르치다"보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트리(C. E. Autrey)는 "이것은 회심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것은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이 전도되어 오는 것 이상의 뜻이 있다"⁹⁾라고 하였다. 그것은 성경을 통하여 사람을 교육하는 것과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수반되는 제자훈련의 이루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회심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다시 오실 주님의 날까지 복음은 계속 증거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차이 없이 정의하였다.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은 그의 저서 *현대 전도학*에서 전도와 선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복음 전도란 선교와 동일한 것이 아니며,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이며, 성부 하나님께 중심을 두며, 그 효과를 완전히 성령의 역사에 의지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의 통합을 의미하고, 결단을 촉구하며 참된 복음전도는 제자를 삼음으로 끝이 난다고 했다.¹⁰⁾

9) C. E. Autrey, *기본 전도학 (Basic Evangelism)*, 정진황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65), 35-37.

마이클 그린은 성경적인 전도는 좋은 소식을 ‘전한다’, ‘선포한다’, ‘증거하다’라는 말로서 이 세 개의 개념이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에 중요한 차원을 더해주었다. 그리고 세계적인 전도자이며 설교자인 존 스토틀(John Stott)는 그의 책인 *예수님과 사도들의 메시지*에서 전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성경의 말씀대로 멸망할 죄인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유일하신 구속자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며 영광중에 예수가 나타날 나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¹¹⁾

이상의 여러 용어들의 정의에 대한 견해들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미국의 트리트 대학의 전도학 교수인 로버트 콜만(Robert E. Coleman)은 그의 저서인 *위대한 지상 명령*에서 전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희생당하셨으며 이제 부활하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고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쁜 일이 일어났음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라고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의는 결국 예수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함과 같은 것이다(마 28:19-20).¹²⁾

결국, 복음 전파 즉 전도란 역사적이며 성경적인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화복케 되도록 설득할 의도로써 선포하는 일이다.

10) Michael Green, *현대 전도학 (Evangelism through the Local Church)*,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2007), 8-12.

11) John R. W. Stott, *예수님과 사도들의 메시지 (Basic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이남종 역 (서울: 무림출판사, 1991), 66.

12) Robert E. Coleman, *위대한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 lifestyle)*, 하정완역 (서울: 두란노서원, 1994), 12.

2. 전도의 당위성

침체현상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한다. 그것은 바로 지상명령의 비전이다. 지상명령의 비전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해주며 달려 갈 방향성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교회가 전도의 목적과 방향성을 상실한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뿐만 아니라 기능까지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 그렇다면 교회는 그저 인간이 모인 사교모임으로 전락할 위험을 맞게 된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지상명령의 비전을 상실한 채 세상 속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저것에 손을 대기에 전도에 관하여는 전혀 힘을 낼 수 없는 현실 되었다.

교회가 정체성과 방향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것은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주님께서는 교회를 왜 세상에 세우셨는가?”이다. 이 질문에 대한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존재해야 하는 그 이유와 근본적인 목적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야 할 것이다.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실천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기록된 말씀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선 폴 파워(Paul W. Powell)은 전도자들에게 있는 지상명령의 비전을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다.

지상명령에의 비전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마태복음 28장 19-20절에 기록된 지상명령은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다. 첫째, 의도적(purposely, intentionally)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섬이다. 둘째, 전도(evangelism)이다. 마가복음 16장 15절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고 있는데 지상명령은 복음의 전파 즉 전도의 우선순위를 가르치고 있다. 지상명령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는 복음전파를 사역의 최우선으로 두게 될 것이다. 셋째, 성도를 성숙하게 하는 일이다(고전 3:1-2; 히 5:11-14).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하며 또한 영접한 자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즉, 그리스도의 제자화 시키는 일은 반드시 따라야 할 일이다(엡 4:11-16).¹³⁾

13) Paul W. Powell, *The Nuts and Bolts of Church Growth* (Nashville: Broadman Press, 1982), 32.

전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책임이자 본분이다. 이처럼 지상명령의 비전은 의도적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행위로부터 시작된다. 그냥 무심코 전도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전도는 목적을 두고 사람을 찾아 가는 것이다. 저절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 희생과 섬김이 전제 되지 않는 전도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들을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회심이다.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이를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는 삶을 말하며,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중요한 과정을 말한다. 그래서 전도학 교수인 김선일은 *전도의 유산*이라는 책에서 진정한 회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진정한 회심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자라고, 죄 용서의 기쁨을 지속적으로 맛보게 해주고, 자신의 인생 주권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교회 공동체와 성례전에 성실하게 참여 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일이다.¹⁴⁾

전도사역은 전도 대상자에게 이와 같이 온전한 회심을 목표로 해야 한다. 전도자는 전도 대상자를 교회로 데려와서 등록시키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 전도 대상자들이 회심을 통하여 인생의 목적과 방향, 열정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자신의 인생과 삶을 맡기며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 이 처럼 교회는 전도의 사명 곧 영혼구원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목적임을 모두가 안다면 큰 건물의 교회, 많은 교인이 모이는 숫자에 현혹되지 않고 교회를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건강한 부흥을 이루어 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전도는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14) 김선일, *전도의 유산 오래된 복음의 미래* (서울: S.F.C 출판부, 2014), 47.

가. 세속화되는 신앙관 탈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속화된 세상 문화 속에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세상 문화에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부족하여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다.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 속의 유혹과 탐심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그 위기 속에 놓여 있다. 세상 문화와 문명이 아무리 발전하고 앞서간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세상 속에서 변화와 주도하며 올바른 진리와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교회는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인간의 타락과 세속적인 삶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한국 교회의 침체원인을 여러 각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최근의 한국교회의 성장의 둔화 혹은 감소의 이유를 한국성서대학교 김승호는 개혁주의 교회성장학회 학술지에서 '한국교회 성장을 위한 일곱 가지의 원리에 대한 고찰'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첫째, 한국사회회의 세속화현상이다. 다원주의, 실용주의 물질만능주의, 쾌락주의, 개인주의와 같은 현상이 한국사회의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 둘째는 한국교회의 세속화 현상이다. 교회는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사회문화의 영향을 직간접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사회의 세속화는 교회의 세속화를 가져왔고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교회 안에 광범위하게 확산해 있다.¹⁵⁾

신앙생활은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으로 나타나야 한다. 만약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함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세상 속에서 복음의 역사는 기대할 수 없다.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으로서 아직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복음의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성장이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전도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부흥과 성장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때부터는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통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기에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 경우가 되는 것이다.

교회는 당연히 세속사회에 거룩한 영향을 주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세상으로 침투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상실하고 세상이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교

15) 안재은, “개혁주의 교회성장,” 개혁주의 교회성장학회 (2008), 97.

회를 세속화시키고 많은 부분 타락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비 콕스(Harve Cox)는 그의 저서 *세속도시*에서 현재의 세속적인 도시의 상황은 우리가 터부시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 성경적,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한 긍정적인 것으로 주장한다. 세속화 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야기하는 상황들이 심각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거리가 되고 있지만 성경과 역사적 배경에서 이것은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말하고 있다.¹⁶⁾ 즉, 세상은 변화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성경적으로도 틀리지 않다는 것이다. 교회는 전도를 통하여 변화하는 세계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도를 통하여 세상 속에서 복음을 통하여 변화시키며 거룩한 영향력을 주도해야 한다.

나. 교회성장 지상주의 극복

오늘날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교회 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주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을 실현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 성장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단지 교인 수 늘리는 기술과 방법 또는 모델로 이해되고 있다. 미국의 탈봇 신학교 교수였던 게리 맥킨토시(Gary L. McIntosh)는 *성경적 교회 성장*이란 책에서 다음과 같이 교회 성장에 관한 잘못된 이해를 말하고 있다.

교회 성장이라는 개념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크리넥스(Kleenex)와 제록스(Xerox)라는 이름이 오늘날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크리넥스와 제록스는 특정한 화장지와 복사기 회사의 이름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름들이 보편화됨으로 인해 오늘날에는 모든 화장지와 복사기를 지칭하는 이름이 되고 말았다. 사람들은 스카티(Scotties)라는 다른 회사의 화장지를 가리키면서도 크리넥스 하나 빼달라는 표현을 쓰고 캐논(Canon)이라는 업연히 제록스와 다른 회사의 복사기를 사용할 때에도 지금 제록스(복사)하는 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성장”의 근본적 취지와는 맞지 않는 많은 교회 사역에 관한 활동들이 “교회 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¹⁷⁾

16) Harve Cox, *세속도시 (The Secular City)*, 구덕관 외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50.

이러한 변화를 염두에 두고 보다 성경적인 개념의 교회 성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교회성장은 교회 건물의 크기와 사람들의 모이는 숫자에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교회 건물이 크다고 교인들이 많은 것은 아니요, 또한 성도들이 많이 모인다고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있다. 남들보다 비교해서 크고 많다는 것에 우월감을 갖는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요, 착각이라 할 수 있다. 교회 건물 크기와 성도들의 모이는 숫자로 교회 성장을 말한다면, 모두가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일에 집중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건강한 부흥과 온전한 성장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가시적인 것으로 교회성장과 목회자의 탁월성을 인정하므로 한국교회는 심각한 성장 지상주의로 만들게 하였다.

미국의 풀러 신학교 윤리학 교수인 이학준은 *한국교회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국 개신교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섬김과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이 된 것이다. 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과 성서 구절로 도배하고 미화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안에 담겨 있는 근본 동기들은 세속적 성공과 욕망의 충족이다. 말리 말하자면 이는 많은 한국개신교인들이 입으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자신들의 사상과 가치와 삶의 중심에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교회가 고민 해야 할 문제는 건물의 크기와 접근성의 편리, 주차장의 완비 여부와 같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다. 교회의 중심이 누구를 향해 있고, 교회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¹⁷⁾

이 글에서 이학준은 오늘날 한국 교회는 정체성의 위기에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한국교회의 가장 큰 실수는 복음의 변질이다. 교회성장을 위하여 목회의 본질을 망각하는 목회자 때문이다. 교회는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힘을 잃게 되어 버린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리고 복음은 그 어떤 것

17) Gary L. McIntosh, *성경적 교회성장 (Biblical Church Growth)*, 이재강 역 (서울: 크리스찬 출판사, 2004), 17.

18) 이학준, *한국교회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서울: 세 물결 플러스, 2011), 44.

에도 변형될 수 없다. 복음은 생명이요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몸 바쳐 희생한 십자가의 복음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이 땅위의 빛이요 소망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이 되어야 한다. 한 영혼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상기하면서 온전한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해 달려가야 한다. 세속화되든 신앙관에서 빨리 탈피하지 못하면 온전한 전도와 건강한 교회 성장은 이를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채 개 교회의 성장만을 추구하는 성장지상주의를 탈피해야 한다. 그래서 전도는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제 2 절 전도의 동기와 목적

본 절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있어서 전도에 그 동기와 목적을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도를 계획하거나 전도대를 조직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전도에 대한 전략을 세우며 전도 훈련 등을 실행한다면 바람직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래서 본 절에서는 전도의 동기와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전도의 중요성을 성경적으로 정립하고자 한다.

1. 전도의 동기

전도를 해야 할 동기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영생함을 주기 위한 중요한 이유가 있다.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캐나다 리전트 대학 신학교수인 제임스 패커(James Packer)는 *복음전도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복음전도의 동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다.

복음전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려면 두 가지 동기가 필요하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려는 마음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의 행복을 구하려는 마음이다.¹⁹⁾

전도의 동기를 첫째 동기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19) James Packrer, *복음전도란 무엇인가 (Evangelism & The Sovereignty of God)*, 조계광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7)), 108-111.

분에게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전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 방법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에 계시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전도의 동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전도는 어떤 명령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의 실천에서 시작된다. 전도는 잃어버린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이기에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전도의 동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죄로 인해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죄와 심판의 자리에 내놓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속의 재물로 드려 속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 주셨다. 이것이 사랑이다(요 3:16). 제임스 패커(James Packer)는 “전도의 궁극적인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한다”²⁰⁾고 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은 최고의 축복이요, 최대의 복음이다. 이 큰 사랑을 받아 구원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롬 5:8; 요일 4:9) 전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강권하여 거부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내면의 복종으로 이끌어 우리로 하여금 전도를 할 수 있게 한다(고후 5:14).

우리 주님은 당시 죄인의 표본이었던 모든 세리와 죄인들도 사랑하셨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두고 원망했을 때(눅 15:1-2), 예수께서는 잃어버린 양,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탕자의 비유(눅 15:11-32)를 통해 잃은 자를 찾으시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은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처럼 전도의 출발점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한다. 잃은 영혼을 에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고 찾아나서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사랑이 전도자가 갖추어야 할 전도의 바른 동기이다.

20) James Packer, *하나님을 아는 지식(Knowing God)*, 서문장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0), 162-165.

전도는 자신의 기분과 자신감으로 하는 것이다. 상황과 여건에 전도를 하는 것도 더욱 아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 것은 말씀을 순종이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모든 명령 중에서 첫째가 무엇이나는 서기관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막 12:29-31)고 말씀하셨다. 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김영욱은 21세기 전도전략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신구약의 모든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길을 잃을 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은 거듭난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서 자발적이며 자연적으로 흘러 나오는 사랑에서 기인해야 한다. 우리가 믿지 않는 그들에게 행할 수 있는 보다 훌륭한 선행은 무엇일까? 그것은 그들이 우리처럼 소중한 구원의 기쁨을 즐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²¹⁾

성경의 모든 내용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전도는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였다. 전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바로 영혼 구원의 사역에 헌신함으로써 표현되는 것이다. 교회성장학자인 도널드 맥가브란(Donald A. McGavran)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구원되어야만 한다는 데에 우선적인 관심을 갖고 계신다²²⁾”고 하였다.

21) 김영욱, 21세기 전도전략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 30.

22) Donald A. McGavran, 교회성장의 이해 (Understanding Church Growth), 한국복음주의 선교학회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21.

시카고 윌로우크릭교회(Willow Creek Community Church)의 담임 목사인 빌 하이벨스(Bill Hybels)는 “우리가 크리스천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치를 두게 될 때에만 우리는 진정으로 자격을 갖추게 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직분을 다하게 될 것이다”²³⁾라고 말을 한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우리 모두는 전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록한 명령을 순종해거 그 분이 우리에게 명하신 지상 최고의 명령인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나. 이웃 사랑

신구약 모든 말씀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라는 말일 것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사랑의 이중 계명 안에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축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전도의 또 하나의 중요한 동기가 된다. 우리는 순수한 이웃 사랑의 동기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전도할 수 있는 것이다. 김선일은 *교회를 위한 전도 가이드*란 책에서 사랑과 전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랑이 전도의 기초이기에 그 사랑은 전도로 표현어야 한다. 미국 연합감리교단의 감독인 스코트 존스(Scott Jones)목사님은, 그의 책 *하나님과 이웃 사랑의 전도: 증거와 제자도의 신학 (The Evangelistic Love of & Neighbor: A Theology of Witness & Discipleship)*에서 사랑과 전도의 관계를 이렇게 말했다. 비 그리스도인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전도하는 것은 제대로 전도하지 않는 것이며, 그들을 전도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비그리스도인 이웃을 전도함으로 사랑하는 것이며, 또한 그들을 사랑함으로 전도하는 것을 의미한다.²⁴⁾

23) Hybels and Mittelberg,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Becoming a contagious christian)*. 한기웅 역 (서울: 도서출판 두라노서원, 1997), 19.

24) 김선일, *교회를 위한 전도가이드* (서울: 새 세대 출판사, 2012), 24-25.

사랑과 전도는 절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관계이다. 이처럼 복음전도에 있어서 그 순수한 동기는 사랑이 그리스도의 삶에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한다. 주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눅 10:29-39)에서 심지어 지리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즉 모든 인류가 우리의 이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친구'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우리의 이웃이라고 가르치셨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명령하셨다(눅 6:27). 이웃에 대한 최고의 사랑은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 받은 성도는 누구나 구원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 동기에서 전도에 힘써야 한다.

다. 구원에 대한 감사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셨다. 이 사실을 감사와 함께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한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마 1:21)라고 하셨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구원의 계획은 십자가를 통해서 실현되었다. 이것이 복음의 중심이다. 이장식은 “복음은 하나님의 배반한 인간의 죄를 사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들며 잃었던 인간의 생명을 되찾는 것이다”²⁵⁾라고 하였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르 위하여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롬 5:8). 그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요 11:7) 하셨다.

그러므로 전도는 전도자 자신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하고 감격 할 때 진정한 전도가 이루어진다.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인들이 생명을 걸고 열심히 전도에 임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마이클 그린은 첫째는 감사의 태도, 둘째는 책임감, 셋째는 사랑이라고 요약하였다.²⁶⁾ 여기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전도의 첫 번째 동기였다고 말한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 자신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체험했기 때문이다.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을 때 자발적으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곧 구원의 감격이 전도자들의 근원적인 동기가 되어야 한다.

25) 이장식, *현대 교회학* (서울: 기독교서회, 1974), 311.

26) Green, *초대교회의 복음전도*, 236-255.

라. 모든 신자들의 책무

전도의 사명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이 사명에 동참해야 한다. 그래서 마이클 그린은 그의 저서 *초대교회의 전도* 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다.

전도는 본래 성직자들의 임무가 아니다. 전도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다.²⁷⁾

예수님께서서는 전도를 통하여 영혼들을 구원하셨다. 죄로 말미암아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하여 천국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 얻은 사람들의 모임을 통하여 이 땅에 교회가 점차적으로 세워지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불신자들에 대하여 전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기를 원하였다. 만일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구원의 선포하지 않는다면 교회로서의 존재의 이유와 하나님의 사명과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된다.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하여 힘을 써야 한다.

2. 전도의 목적

가. 영혼 구원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죄 값으로 지옥 갈 사람을 천국백성으로 삼는 일, 즉 영혼 구원하는 것이 전도의 최대의 목적이다. 타락한 인간은 생명의 근원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생명을 잃고 있다(엡 2:1). 성경은 그런 인간에게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하는 길을 소개하고 있다. 그 길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한 회복의 길이다(요 5:39; 14:6).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은 죄의 담을 헐어버리셨다. 죄지은 인간을 포획하고 있던 사단의 간계를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골 2:15).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려는 하나님의 열망이 이루어졌다(요

27) Green, *초대교회의 복음전도*, 14.

19:30).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마다(마 28:18-20; 요 20:21) 명시된 것처럼, 예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사역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임하고 승천하셨다.

최홍준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전도하고 제자삼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일을 고스란히 위임받은 것이다”²⁸⁾라고 하였다. 성경은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중심 메시지는 구원이다. 예수님은 죄인 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마 1:21; 딤후전 1:15). 이 땅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딤후전 2:4-5). 그분은 이 땅에 전도하기 위해 오셨다(막 1:38). 그 일이 우리에게 위임된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총을 입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위임장을 받아든 전도자로서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나. 하나님 나라의 구현

교회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셨다. 여기서 엘머 L. 타운즈(Elmer L. Towns)는 하나님의 나라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²⁹⁾로도 표현되는데, 이것은 교회의 존재목적이자 교회가 이 땅에 증기 할 내용이기도 하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중대한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이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다. 누가복음 12장 49-50절을 보면 “나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반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요 19:30). 라고 하심으로 그 나라를 건설하셨고, 그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은 그의 몸 된 교회 즉,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맡겨 주신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지상명령에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기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하였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어느 지역이나 민족에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어느 민족 어느 방언에도 하나

28) 최홍준, *잠자는 교회를 깨운다* (서울: 규장문화사, 1998), 132.

29) Elmer L. Towns, et al, *교회성장 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Evaluating the Church Growth Movement)*, 김석원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9), 114,

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되기를 기대하신 것이다.

다. 하나님의 영광

전도의 목적인 영혼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이긴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G. I. 윌리엄슨(G. I. Williamson)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³⁰⁾이라고 하였다. 전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그리고 전도의 본질에 대하여 R. B 카이퍼(R. B. Kuiper)는 그의 저서 *전도신학*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전도의 목적은 영혼구원 단 한가지로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죄인들의 회심은 전도의 목적이요 중요한 것이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 그런데 전도의 고상한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행복도 아니요, 외적인 축복도 아니며 ‘하나님의 영광’이다.³¹⁾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할 수 있는 최상의 행위가 바로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개혁주의 목회자인 마크 데버(Mark Dever)는 다음과 같이 전도의 이유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모두 복음을 전해야 한다. 모두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 정직하고 긴급하게, 기쁨으로 복음을 뒷받침하는 삶을 살며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³²⁾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데 있는 것이라고 하셨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하셨다. 사도바울은 그리스도의 존귀케

30) G. I. Williamson,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강해 (The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for study classes)*, 유태화 역 (서울: 크리스찬 출판사, 2006), 1-4.

31) Kuiper, *전도신학*, 1117.

32) Mark Dever,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 (Nine Marks of a Healthy Church)*, 이용중 역 (서울: 부흥과 개혁, 2007), 193.

되심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보편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빌 2:11)하는 것이 된다는 하였다. 이로써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제 3 절 전도 훈련의 필요성과 유익성

앞 절에서는 전도의 정의와 당위성 그리고 동기와 목적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이제 본 절에서는 전도 훈련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과 함께 그에 따른 유익한 점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1. 전도 훈련의 필요성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계실 동안에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동거 동락하시면서 3년 동안 훈련시키셨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은 12제자들을 부신 후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였다(막 6:7). 그리고 마지막 승천 할 때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였다(마 28:20). 박종무는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삼았던 것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 하는 훈련이었다³³⁾”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교인 신앙 훈련과 개인의 신앙 훈련의 필요성을 살펴보려고 한다.

가. 전 교인 신앙 훈련

교회성장은 어느 한 개인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연히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은 더욱 아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되고 그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교회가 부흥되는 일이 어느 곳에도 없다. 이 모든 것에는 사명과 훈련을 통한 땀과 수고와 눈물이 뒷받침 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이 전도에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투자할 때 전도는 시작되는 것이다.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가장 우선 되어야 하는

33) 박종무, *개인전도의 이론과 실제* (서울: 양서각, 1985), 123.

것은 교회 전체 교인들을 훈련하여 전도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인식하게 하여 전체 교회 분위기를 전도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전도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은 담임목사이다. 교회의 담임목사의 목회 방향성도 전도에 초점에 맞추어 있지 않을 때는 교인들에게 전도훈련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말할 수 없다.

전도를 그냥 구색 맞추기씩 년 중 행사의 하나로 여겨서는 안 된다. 담임목사의 목회의 철학과 함께 목회 방향도 초점에 따라 교회정책과 목회 사역도 전도 중심으로 교회가 한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도의 불이 붙게 되는 것이다. 교회 안에는 직분자들이 있다. 그중에서도 교회의 일에 신경을 많이 쓰며 보다 많은 책임감을 가진 항존직 직분자들이 전도자로서의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담임목사의 목회의 돕는 아론과 훌 같은 항존직 직분자들이 전도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을 가진다면 그 외 모든 성도들도 자연스럽게 전도의 중요성과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한 교회의 전도는 담임목사 혼자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할 때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전도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는 영적인 싸움이다. 그냥 쉽게 불신자들에게 접근하여 복음을 전할 수는 있겠지만 그들의 마음의 열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작정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자신에게 돌아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은 감당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전도자들은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 준비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곳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영적인 자원을 공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모임이 많아야 하며 그에 따른 훈련 있어야 한다.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함께 모여 기도해 힘을 썼다. 그 결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놀라운 전도자들이 되었다. 이들은 기도의 자원을 통하여 전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론 스미스(Ron Smith)는 그의 책 *개인 전도의 입문*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하지 않고 나가는 전도하려는 것은 시간 낭비다”³⁴⁾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전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영적인 각성과 함께 전도의 능력

34) Ron Smith, *개인 전도의 입문(The A B C of personal evangelism)*, 권명달 역 (서울: 보이스사, 1982), 86.

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전 교회적으로 기도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좋다. 둘째는 전도자들은 자신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 훈련이 필요하다.

네비게이토 신교회의 미국 남서부 지역 대표로 봉사하였던 월터 헨릭슨(Walter A. Henrichsen)은 자신의 책 *훈련으로 되는 제자*에서 전도자의 자격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다.³⁵⁾ 전도자들은 하나님을 사랑을 이미 받았기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하는 것이다. 그 사랑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며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전도를 위하여 교회적으로 전 교인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신앙교육과 함께 말씀 훈련을 배양해야 한다.

나. 개인의 신앙 훈련

개인적으로 영성훈련은 전도를 위한 중요한 중한 것이다. 영적인 훈련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 주어진 모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함인 것으로 전도에 중요한 부분이다. 영성훈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으로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훈련으로 되는 것이다.³⁶⁾ 전도를 하기 전 우선 전도자가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어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영적인 훈련은 핵심과 기초는 하나님과 교제를 말한다.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을 인식하고 회복하는 삶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³⁷⁾ 전도자들은 전도 사역을 하기에 전에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영적인 힘으로 전도사역에 임해야 한다. 다음과 같이 전도자들이 불신자들에게 전도하

35) Walter A. Henrichsen, *훈련으로 되는 제자 (Studying,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Bible)* (서울: 네비게이트신교회, 1980), 12.

36) 오성춘, *영성훈련의 실제* (서울: 성지출판사, 1992), 46.

37) John Calvin, *칼빈의 경건 (Devotion of Calvin)*, 이혁기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사, 1984), 132.

기 전에는 개인적으로 몇 가지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로, 기도훈련이다. 기도생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면서 필요한 한 부분이다. E. M. 바운즈(Bounds)는 “기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주권자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가 된다.”³⁸⁾라고 하였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신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강력하게 기도했다. 사도행전 4장 24-30절은 예루살렘 교인들은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다. “별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행 4:31).

사도행전 10장에는 이방인의 사람이었던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하였고, 또한 베드로에게도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고넬료에게로 가서 만나라고 하였다. 이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꺼려하는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바꾸시기 위한 계획이었음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다(행 10:1-20).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사도행전 13장에는 초대교회인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금식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였다(행 13:1-3).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계획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박은규는 “기도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전도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행하는 것임을 발견하게 된다³⁹⁾”라고 하였다.

두 번째는 말씀 훈련이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신앙과 신학의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문석호는 “전도자들은 언제나 말씀 안에서 일치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⁴⁰⁾”라고 하여 전도자들이 삶에서 말씀과 항상 일치된 모습을 보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였다. 복음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전도에 임해야 한다. 자신이 가진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도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필요할 때는 성경을 불신자들에게 펴서 읽어 주어야 한다. 성경

38) E. M. Bounds, *기도의 능력 (Power through Prayer)*, 이정윤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2), 12.

39) 박은규, “한국목회 유형분석,” *기독교사상*, 1996년 11월호, 154.

40) 문석호, “현대기독교와 영성,” *신학지남* (2004 가을), 205.

적인 지식이 많으면 불신자들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날에는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오히려 이단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의 복음의 전할 때가 있다. 그때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의 말에 속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사도행전에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블로라는 유대인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행 18:24).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있어서 열정과 열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훈련하여 전도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불신자들에게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성경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처럼 전도자가 스스로 불신자들을 향하여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전도를 할 수가 없다. 준비된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2. 전도 훈련의 유익성

올바른 전도를 통한 교회 성장은 각 개 교회들과 전도자들에게 참으로 많은 유익을 가져다준다. 전도는 교회의 건강성의 표지가 되며 그리고 건강한 교회의 표지는 성장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생명력을 가진 유기체이기 때문에 건강하다면 성장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와 개인의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래서 전도를 훈련을 통하여 얻게 되는 몇 가지 유익한 것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건강한 교회 성장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를 맺고 교회의 일원이 되며 교회는 성장하게 되기 때문이다. 김연택은 “전도는 교회의 생명”⁴¹⁾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교회가 건강을 유지하고 성장해 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은 교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41) 김연택, *21세기 건강한 교회* (서울: 도서출판: 제자, 1997), 256.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스왈드 스미스(Oswald J. Smith)가 지적한 것처럼 “오늘날 많은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은 전도가 죽었기 때문”⁴²⁾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생명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구도자 예배를 통해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 힘썼던 교회로 잘 알려진 윌로우 크릭 교회 이야기에 대하여 빌 하이벨스는 “교회가 전도를 우선순위로 유지하였기 때문에 성장하였음을 강조한다. 외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대형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크기, 넘치는 에너지, 사역자, 탁월성에 대한 고집, 대중예배를 드리는 방법 등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 교회는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다.”⁴³⁾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성장하는 이유이고, 교회가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하워드 스나이더(Howard A. Snyder) 는 그의 저서 *참으로 해방된 교회*에서 만약에 교회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면 영적인 불구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교회라면 전도가 언제나 중요한 우선순위를 차지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성장에 대한 관심 때문만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부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을 전부 포함한다(엡 1:10).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주되심 아래 각 사람의 의지와 삶을 전부 복종시키는 것을 그 핵심으로 한다.⁴⁴⁾

교회는 공식적인 선포와 설득 위주의 전도는 물론, 개인적인 전도를 실시해야 하며, 그리고 세 신자들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명백한 명령이다. 성경에 충실함은 곧 전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도에 대한 열심과 영원에 대한 경이감을 상실한 교회는 한 세대만 지나면 영적인 불구자가 되고 만다.

42) Oswald J. Smith, *구령의 열정 (The Passion For Souls)*, 박광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7), 85-86.

43) Bill Hybels, *윌로우크릭 커뮤니티 교회 (Rediscovering Church)*, 김성웅 역 (서울: 두란노, 1997), 49-50.

44) Howard A. Snyder, *참으로 해방된 교회 (Liberating the Church)*, 권영석 역 (서울: IVP, 2006), 214-215.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닌 살아 있는 생명 유기체이다. 그래서 김연택은 “전도는 교회의 양적 성장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질적 성장도 가져오는데, 그 이유는 교인들이 전도를 하면서 자신이 영적인 성숙과 함께 성장의 경험을 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먼저 변화를 받게 된다”⁴⁵⁾고 하였다.

스카보로우(L. R. Scarborough)는 “전도의 분위기가 성숙해 있는 교회야말로 영적인 진리가 견고하게 다져진 교회이다. 영적인 생활에 뼈대가 되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진리는 전도하는 교회에서 강하게 형성된다”⁴⁶⁾고 했다. 그와 같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은 자유롭게 그리고 아무런 부담감 없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전파시키기 위한 그들의 임무를 잘 감당한다. 하워드 스나이더는 “전도는 생명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나눌 수 없고, 따라서 교회의 복음 전도의 열매는 교회의 영적 활력의 정도에 비례하는 것이다”⁴⁷⁾라고 하였다. 결국 전도는 교회의 생명력을 좌우하는 중대한 요소가 된다.

나. 개인의 영적 성장

영혼 구원의 거룩한 사명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외 없이 주어졌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인도하는 것이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건강하지 못한 상태인 것이다.

리로이 아임스(LeRoy Eims)는 “증거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 흐르는 것”⁴⁸⁾이라고 하였다. 생명이 상실되고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성장이 없으면 열매도 없다. 열매 없는 성장은 가치 없는 삶을 산 것이라는 것을 스카보로우(L. R. Scarborough)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45) 김연택, *21세기 건강한 교회*, 256.

46) L. R. Scarborough, *전도학 개론 (With Christ After the Lost)*, 이명희 역 (서울: 보이스사, 1986), 118.

47) Snyder, *참으로 해방된 교회*, 218.

48) LeRoy Eims, *그리스도인 성장의 열쇠 (What Every Christian Should Know About Growing)*, 네비게이토 출판사 역 (서울: 네비게이토 출판사, 2000), 139.

불신자들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살면서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서 보답하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열매 없는, 가치 없는 삶을 산 것이고 면류관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두발할 것도 없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⁴⁹⁾

이와 같이 전도는 영적인 삶에 있어서 구체적인 열매를 맺는 일에 많은 유익을 가져다준다. 전도의 중요성은 전도대상자의 변화에만 국한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도는 교회의 양적 성장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질적 성숙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연택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도는 교회의 양적 성장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질적 성장도 가져온다. 이것은 외부 내향적 원리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교인들이 전도를 하면서 자신이 영적인 성숙과 성장의 경험을 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먼저 변화를 받게 된다.⁵⁰⁾

이와 같이 전도는 외부적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전도에 참여한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경험시켜 주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첫째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확신을 가지게 된다. 둘째로, 전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경을 많이 보게 되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말씀의 뜻을 찾게 된다. 셋째로, 전도하게 되면 주님의 사신으로 일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전도는 일차적으로 전도자의 신분을 노출해야 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 때 전도자의 신분은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사회적 배경을 말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들을 밝힐 필요가 있으나, 전도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분은 그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고, 그중에서도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이다. 이러한 노출이 진행될 때 전도자는 전도대상자에게 자신의 성결함과 신실함을 드러낼 수 있는 윤리적 성숙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자체가 전도자의 부담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전도자 개인의 영적인 성장

49) Scarborough, *전도학 개론*, 25.

50) 김연택, *21세기 건강한 교회*, 256.

에 유익을 가져다준다.

전도는 전도하는 자의 영혼을 위하여 필요하다. 왜냐하면 전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더욱 넓은 이해와 영적인 식견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또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게 한다. 전도는 전도자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시민임을 확신하게 해준다. 스카보로우(L. R. Scarborough)는 “전도는 전도자로 하여금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을 영원한 목적으로 삼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교제를 나누게 해 주기도 한다⁵¹⁾”라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전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통하여 이루어는 것이다.

지금까지 본 장에서는 전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도에 관한 여러 내용을 살펴보았다. 우선, 전도의 성경적인 정의와 함께 전도 당위성을 알아보았다. 전도란 말의 어원들은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결국 복음 전파 즉, 전도란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 것이다.

전도의 동기와 목적에 있어서 전도의 궁극적인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잃은 영혼을 향한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고 찾아나서는 것이 진정한 전도자가 갖추어야 할 전도의 바른 동기이다. 그 다음은 하나님 사랑과 함께 이웃사랑이 실천되어야 한다. 순수한 이웃 사랑의 동기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구원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함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 동기에서 전도가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예수님은 죄인 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 일이 우리에게 위임된 것이다. 그러므로 전도자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삶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중대한 목적인 영혼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전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복음 전파의 중요성에서는 전도는 하나님의 부탁이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마땅히 그 일에 순종해야할 책임과 임무가

51) Scarborough, *전도학 개론*, 27-28.

있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교회 존재의 이유도 없는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셨다. 구원 받은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도의 중요한 이유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래서 전도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케 되도록 설득할 의도로써 선포하는 일이다. 그래서 전도 훈련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복음은 준비된 전도자들의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 보다 확실하고 분명히 전달되어야 한다. 전도에 대한 사명을 잃은 채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삶속에서 전도에 관한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되지 않는 군사는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

이제, 다음 장에서 본 장의 전도의 이해의 내용을 토대로 전도 사역을 통하여 건강한 교회 성장을 이룬 교회들의 사례를 연구 분석하여 살펴 볼 것이다.

제 3 장

전도를 통한 교회 성장을 이룬 지역교회 사례 연구

앞 장에서는 전도의 기본적인 이해들을 문헌적인 방법으로 살펴보았다. 모든 교회들이 소망은 건강한 부흥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대부분의 교회가 전도에 힘쓰고 있지만, 전도를 통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한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전도에 대한 당위성과 부담감에 비해서 대부분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도를 중심으로 건강하게 교회를 성장시킨 몇몇 교회의 사례를 연구하고 그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장에서는 전도를 통하여 건강한 교회 성장을 이룬 부산의 수영로교회와 포도원교회, 그리고 인천의 주안장로교회를 대상으로 각 지역교회들의 사례를 심도 있게 연구 분석하며 전도와 교회의 성장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 1 절 수영로 교회 사례연구

수영로교회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가장 큰 교회이다. 수영로교회는 본 연구자가 부교역자로 9년을 섬겼기 때문에 그 성장 배경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수영로교회가 전도를 통하여 어떻게 건강한 교회로 성장했는가에 대하여 원인을 연구 분석하기 위하여 교회의 간략한 소개와 함께 전도 사역 내용들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그 내용을 평가를 하고자 한다.

1. 교회 소개

수영로교회는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에 속한 교회이다. 현재 이규현목사가 담임으로 섬기고 있는 부산 최대의 교회중의 하나이다.

부산 수영동 로타리에 교회를 지으면서 수영로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바로 옆자리에서 두 번째 예배당을 짓고 성장하다가 2001년 9월 16일에 해운대 지역으로 예배당을 지어 입당하면서 지금까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 수영로교회는 정필도 목사가 1975년 6월 1일 개척하여 지난 2011년 10월에 36년의 목회사역을 은퇴하였다. 수영로교회가 2015년도 올해 설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까지 건강한 성장을 이루게 된 배경에는 정필도 목사의 목회 철학인 “부산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꿈꾸는 사명 공동체”를 통하여 알 수가 있다.⁵²⁾ 수영로교회는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산, 민족, 세계 복음화를 위해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왔다. 그리고 현재 이규현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21세기의 비전인 말씀 중심의 교회, 은혜 중심의 교회, 선교 중심의 교회로 부산과 민족과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그날까지 믿음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2. 전도 사역

수영로교회의 전도 사역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소개 할 수 있다. 첫째는 총력전도 시대로 개척부터 2001년도 구예배당 시대까지이다. 이때는 일명 ‘동원식’전도 방식으로 대형집회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둘째는 새 예배당 시대의 전도의 패러다임으로 소그룹 전도식 ‘사랑방 전도축제’를 통하여 관계 전도중심적인 전도를 전환하였다.

가. 총력 전도시대

수영로교회가 개척된 197년부터 2001년도까지 구성전 시대로서 교회가 수영동 로타리에 세워져 있을 때이다. 이 시기의 전도 사역 방식은 ‘동원식’ 전도였다. ‘동원식’ 전도 방식은 한국교회 초창기 부흥기를 맞이할 때 대부분의 교회들이 많은 효과를 거두게 한 전도 방법이었다. 수영로교회는 개척초기에는 청년들이 토요일마다 부산 시내버스를 타고 종점에서 종점까지 수차례 오가면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것을 주 사역으로 하였다. 그리고 개척 후 5년째 1980년 말 1천명 총동원 전도집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본격적인 성장기를 맞아

52) 편찬위원회, *수영로교회 30년사* (부산: 수영로교회, 2005), 24.

순향을 계속하게 된다.⁵³⁾

그리고 수영로교회 설립 11주년이 되는 날 1986년도 6월 29일은 6. 29 총동원전도주일날도 정하였다. 그때 모든 교인들이 2만 명을 전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총동원 전도집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 결과, 집회 당일만 추산한 인원으로도 2만6백50명(20,650명)이나 되는 인파가 수영로교회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다. 더욱 경탄할 만한 사실은 이 숫자가 주일학교 학생을 제외한 것으로서 이 가운데 결신자는 3,068명이나 되었다.⁵⁴⁾ 2006년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은 정필도 목사의 논문을 보면, 그는 “수영로교회의 성장사 가운데 특히 이때 ‘6. 29 총동원 전도’가 교회 성장의 분기점으로 손꼽고 있었다”⁵⁵⁾고 기술하고 있다. 그 후 1991년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익투스 부산복음화 대회’라 명칭으로 초대형 전도집회로 자리 잡게 된다. 부산 올림픽 공원에서 펼쳐진 대회는 모인 인원이 약 25만여 명이 참석하였고, 그 후에도 1993년도는 ‘익투스 93부산 복음화대회,’ 1994년도는 ‘익투스 94부산복음화대회,’ 1995년도는 ‘익투스 95 천국시민 배가운동’, 1996년도는 ‘새 생명 6,000운동’, 1999년부터는 부산 복음화를 위한 ‘새바람 전도축제’라는 이름으로 새 교회당 이전까지 전도운동을 전개하였다.

나. 사랑방 전도축제

수영로교회는 2001년 들어 새 교회당으로 입당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구역을 소그룹으로 전환하면서 교회의 전도 방식도 새롭게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⁵⁶⁾ 기존 구역 중심의 ‘총력전도’에서 소그룹의 명칭을 ‘사랑방’이라 하여 ‘관계전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수영로교회는 개척부터 구 예배당시대까지 ‘총력전도’의 개념으로 대형집회를 통한 전도사역에 집중하여 왔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랑방’이라는 전도 소그룹을 통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보다 세밀하게 전도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12주 동안 전도의 과정이 진행되어진다. 기도 준비, 관계 맺기, 목장 초청, 교회 초청의 순으로 진행된다. 수영로교회 사랑

53) 편찬위원회, *수영로교회 30년사*, 75.

54) Ibid., 100.

55) 정필도, “Dynamics of Sooyoungro Church Growth: a Case Study” (D.min. diss.,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2006), 28-29.

56) 박윤성, *수영로교회 소그룹 이야기* (서울: 기독지혜사, 2005), 31-32.

방 소그룹 전도는 일 년에 두 차례씩 봄과 가을에 진행한다. 처음에는 과연 전도 소그룹인 '사랑방'을 통하여 관계전도가 이루어 질 수 있을까? 그리고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전도의 인식전환이 되어졌을까? 의아심도 있었지만 그것은 기우였다. 결과는 대단히 만족스러웠다.

3. 평가

수영로교회는 개척부터 옛 교회당 시대까지는 '총력전도'를 실시하여 교회성장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2001년 새 교회당으로 입당한 후에는 소그룹 전도방식으로 새로운 전도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예전의 '총력전도' 행사에는 많은 장점이 있었다. 경품과 선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 복음을 듣게 하는 일이었다. 나름대로 좋은 결과와 열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이러한 전도 형태가 잘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현대인들에게 적합한 전도 모델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현대인들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필요로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물질문명이 발달 할수록 사람들은 인격적인 관계,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을 그리워한다. 특별히 도시에서는 아파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옆집에 사는 이웃조차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관심까지도 갖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이처럼 폐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관심과 사랑이다. 개인주의가 가속될수록 더욱 필요한 것은 관계에 의한 관심과 사랑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영로교회는 '총력전도'에서 사람들과 만남의 관계를 지향하는 '사랑방' 소그룹을 통한 관계 전도는 매우 중요한 전도전략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총동원 전도보다 소그룹으로 전도하는 '사랑방 전도축제'를 통하여 전도되어 온 등록 인원이 현저히 증가하게 되는 결과는 얻게 되었다. 지금까지 수영로교회는 '사랑방 전도축제'를 통하여 부산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제 2 절 포도원교회 사례연구

포도원교회는 본 연구자가 신학교 학부시절에 소속되어있던 고신 교단의 교회이다. 당시에는 포도원 교회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현재는 부산 경남지

역에서는 전도를 통하여 건강한 교회로 성장한 모범적인 교회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본 절에서는 포도원교회가 어떻게 전도를 통하여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분석하고 평가해 보고자 한다.

1. 교회 소개

포도원교회는 부산 북구에 위치한 대한 예수교 장로회 고신측 교단의 교회이다. 현재 부산에서 고신측 교단에서 가장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중 하나이다. 포도원교회는 1981년 3월 22일 창립예배를 드리고, 1999년 김문훈 목사가 3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2004년 9월 북구 화명동 신시가지내 화명예배당을 완공하여 입당, 화명성전과 덕천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 왔었다. 2014년 9월 북구 금곡동에 본당 3500석의 드림센터를 완공하여 입당했다. 지금은 금곡동에서 새로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고 있다. 현재 포도원교회는 1만 가정, 3만 성도, 10만 선교, 100만 전파의 비전을 가지고 남·여전도회, 영아부에서 대학부까지 체계적이고 알찬 양육과정, 다양한 성경공부와 단계적인 제자훈련을 통해 꿈과 사랑이 샘솟는 아름다운 포도원교회를 세워가고 있다. 해외, 국내, 기관, 문화선교를 통한 헌신적인 국내외 선교활동과 실업인 선교, 의료선교, 집수리선교, 꽃꽂이선교, 미용선교, 밀반찬선교, 축구선교, 족구선교, 야구선교, 문화강좌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따뜻한 교회, 열린 교회를 지향하고 있다. 미래 포도원교회는 지역사회의 복음화, 세계선교를 감당하며 나라와 사회의 각 분야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여 키우고 기독교 문화의 확산과 기독교세계관을 확립해 나아가려 한다. 그리고 오직 성경 그리고 교회중심, 하나님 중심의 모토로 개혁주의 신앙의 정통을 이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구현 즉, 복음화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아가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하려 한다.⁵⁷⁾

2. 전도 사역

포도원교회의 가장 큰 교회 성장의 원동력은 김문훈 목사의 열정에서 시작되었다. 담임목사의 전도에 대한 열정이 성도들로 하여금 전도의 중요성과 실제 전도의 삶을 살게 한다. 포도원교회는 교회 위치의 이동에 따른 주거형태의 변화를 통한 전

57) 포도원 교회 홈페이지 www.podowon.or.kr 교회 소개 참조.

도방식을 말할 수 있다. 이전에 덕천동에 교회가 있을 때에는 교회 주변 주거형태는 단독 주택들로 형성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노방전도 및 총력전도 등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교회당을 지어 현재 포도원교회가 위치해 있는 화명동에는 아파트가 밀집해 있다. 따라서 아파트전도에 대한 관심이 특별하다. 아파트를 어떻게 공략하여 전도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⁵⁸⁾ 그때부터 전도 방식을 연구하여 새롭게 전환하여 특별히 찾아낸 것이 전도팀을 통한 아파트 전도대를 조직하여 전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전도팀들을 세밀하게 구분하여 포도원 주변의 주택 및 일반 도로에서는 노방전도를 시행하고 포도원교회 부근의 아파트 밀집지역을 꼼꼼하게 직접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인 전도를 통하여 성장한 교회이다.

3. 평가

전도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담임목사의 목회 방향성이라 말할 수 있다. 포도원교회의 김분훈 목사는 교회 사역에 있어서 전도를 가장 우선으로 여김으로 교회 부흥의 주도해 갔다. 이것이 부교역자와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되어 전교인의 전도 생활화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포도원교회의 전도방식에 있어서 지혜롭게 지역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교회 주변 지역의 주거환경에 맞게 전도를 실시했다. 오늘날에는 특히 아파트 전도는 가장 힘든 전도방식 중의 하나이다. 요즘에 짓고 있는 아파트는 출입구부터 일반인에게는 좀처럼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그리고 아파트의 동마다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전도하고 있지만, 좀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현실이다.

그러나 포도원교회는 이러한 환경적인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건강한 교회 성장을 이루었다. 전도팀을 구성하여 포도원교회 부근의 아파트 밀집지역을 내 집처럼 찾아다니며 안 믿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안간힘을 다하는 모습은 전도자에게 있는 열정과 열심의 태도이다. 그리고 포도원 교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거점으로 하여 이웃들과 관계를 맺고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전 성도들이 전도의 체질화로 분명한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58) 이인철, "An Effective Evangelism Strategy for Building up a Healthy Churc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Podowon Church"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0), 49.

있다. 오늘날 도시는 대부분의 주거환경이 아파트로 밀집되어 있다. 그렇다면 포도원 교회처럼 아파트전도를 위하여 팀을 이루어 세밀하게 찾아가는 전도와 지역에 거주하는 성도들을 거점으로 전도를 한다면 아파트 전도의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제 3 절 주안장로교회 사례연구

주안장로교회는 본 연구자가 섬기는 교회와 같은 인천 부평구 지역에 위치한 교회이다. 그래서 주안장로교회의 성장에 관한 이유에 대하여 관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주안장로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고, 그것을 분석하고 평가를 하고자 한다.

1. 교회 소개

주안장로교회는 인천 부평구 신곡동에 위치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의 교회이다. 주안 장로교회는 1948년 2월 인천시 주안동 280-2에 교회를 개척하였고, 초대 교역자로 박영환 목사가 교회를 담임하였다. 그 후 1978년 10월 15일에 현재 주안 장로교회 원로목사인 나겸일 목사가 청빙되었으며, 1980년 5월 18일 나겸일 목사가 위임 목사로 부임하였다. 주안 장로교회 주안 성전은 1984년 1월 1일에는 인천직할시 주안동 174-1번지에 주안 장로교회 주안 성전에 입당했다.⁵⁹⁾ 그리고 2002년 10월 6일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 4동에 8,000석 규모에 15,000명이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대예배실과 부속 건물을 가진 산곡동 새 교회 입당 예배를 거행하였다. 이를 계기로 기존의 주안동에 있던 주안 장로교회를 주안 장로교회 주안 성전으로 명명되고, 각종 예배와 행사는 산곡동에 있는 주안 장로교회 부평 성전을 중심으로 거행되고 있다. 주안 장로교회 2012년 1월 29일 나겸일 담임 목사, 공로 목사 및 원로 목사 추대 예배를 거행하였다. 그리고 현재는 주중중 담임목사가 주안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회복하고 진정한 예배의 회복과 살아있는 말씀중심의 성경적 가치관을 지닌 주안장로교회는 예배와 말씀이 중심인 교회이다.⁶⁰⁾

59) 네이버 “지식백과, 주안 장로교회 주안 성전” (서울: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60) 주안장로교회 홈페이지 <http://w3.juan.or.kr/> 교회 소개 참조.

전도와 선교에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주안장로교회는 그동안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그 결과, 수많은 생명들을 주님께 인도한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하였다

2. 전도 사역

주안장로교회는 1978년 200명이었던 교회에 38세의 젊은 나이로 부임한 나겸일 목사의 “죽도록 충성하라”(계 2:10)는 말씀을 목회 좌우명으로 삼아 목회의 핵심 사역을 총동원 전도에 집중시킴으로써 전교인 총력전도에 주력하여 재적 성도 5만 명이라는 기적을 불러일으킨 ‘한국교회 총동원 전도운동의 모태’로 성장한 교회이다. 교회의 전도방식이 총동원전도만이 전도의 전부는 아니지만, 주안장로교회는 지금까지 총동원전도를 통해 성장해 건강한 성장을 이루어 왔다. 그리고 현재에도 변함없이 총동원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실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사영리 훈련을 통한 전도, 다리 예화를 통한 전도, 전도폭발 훈련을 통한 전도, 이슬비 전도 방법을 통한 전도, 선물을 통한 전도, 알곡 중심 개인전도, 교구별 전도, 등등의 전도 방식을 함께 시행하고 있다.⁶¹⁾ 그리고 주안장로교회는 총동원전도의 분명한 목적과 함께 세부적인 실행 지침이 있다. 주안장로교회가 20년 이상을 한 가지 전도방법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가운데 기존의 총동원전도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3. 평가

교회가 성장하는 이유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에게 달려있다. 주안장로교회의 나겸일 원로목사의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목회 좌우명을 가지고 전도사역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이 지금의 주안장로교회가 건강한 성장을 이루게 하였다. 그리고 나겸일 원로 목사는 전도에 대한 선입견과 함께 ‘총동원 전도’라라는 잘못된 인식을 벗어나게 했다. 그 이유는 교회의 전도방법이 단순히 교회의 연중행사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과 많은 예산을 들이고도 영혼구원을 얻지 못하는 내실 없는 실패한 방법론이라고 알려진 부분이다. 그러나 주안장로교회의 총동원전도는 양육까지 이어지도록 계획을 세우고 전도를 한다. 진정한 총동원전도란 역동적인 예배, 지역사회 봉사, 구체

61) 나겸일, *전도 집중 교회로 만들라* (서울: 규장문화사, 2001), 150.

적인 새 신자 양육프로그램 등 교회의 후속 조치로 성취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주안장로교회는 장로교 통합측 교단의 일반정서와는 달리 성령운동에 매우 적극적인 교회이다. 총동원전도는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이 일은 주도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중요성과 함께 구령의 열정을 심게 하였다. 주안장로교회는 생명구원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교회성장의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에도 건강한 교회 성장을 소망하는 교회들에게 주안장로교회의 총동원전도의 목회 철학과 함께 그 방법의 다양성을 배우게 된다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 생각 한다.

지금까지 본 장에서는 한국교회에서 전도를 중심으로 건강하게 교회를 성장시킨 세 교회의 사례를 연구하고 그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해보았다. 수영로교회는 개척부터 시작된 '총력전도'에서 새롭게 새 교회당으로 입당한 2001년부터 새롭게 소그룹 전도인 '사랑방전도축제'를 통하여 성장한 교회이며, 포도원교회는 이전의 교회에서는 노방전도를 주력으로 하였지만, 새 예배당을 지으면서 교회 주변이 아파트 밀집지역이라 전도방식을 '아파트 전도'사역을 중점으로 시행하여 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주안장로교회는 나겍일 목사의 목회철학을 중심으로 '총동원 전도'를 통하여 지금까지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지속하여 건강한 교회 성장을 이루게 되던 것을 고찰하였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본 연구자가 섭겼던 광명교회를 중심으로 전도를 통한 교회 성장의 상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전에 먼저, 광명교회가 위치한 의정부 지역 분석과 함께 광명교회 목회 현황을 파악하여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살펴볼 것이다.

제 4 장

광명교회 지역 분석 및 목회 현황

교회는 그 자체적인 본질과 사명을 갖고 있지만 지역사회와 전혀 상관없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다. 오히려 교회의 주변지역 상황을 정확히 알아갈수록 교회의 사명은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그래서 본 장에서는 의정부 지역의 현황을 세밀하게 파악한 후 광명교회의 교회 역사적 배경인 교회 설립 및 성장과 광명교회 목회현황을 통하여 교회 본질과 전도의 사명을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의정부시의 지역 분석

본 절에서는 의정부시의 지리적 상황, 지역 현황 및 인구동향, 그리고 의정부시의 영적인 상황을 살펴볼 것이다.

1. 지리적 상황

의정부시는 경기북부 지역의 교통, 산업,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도시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 동북쪽을 연결하는 관문도시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전철1호선, 경원선 및 평화로가 시가지 남북으로 가로 지르고 있으며, 서울시로부터 녹양동까지 국도3호선 우회도로가 사패산 서쪽 기슭을 감싸 돌고 43호선 국도는 천보산 분수령을 넘어 철원방면으로 연결되는 등 경기북부의 심장부를 형성하고 있어 옛날부터 교통의 요충지로 부각되어 왔다.

의정부시는 서울시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과거부터 위성도시의 기능을 해왔다. 의정부시는 지리적으로 서울시에 인접하여 서울대도시 세력권에 포함되며 교통접근성이

양호하여 경기북부 지역의 거점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의정부시의 경우에는 수도권 규제권역 중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까닭에 개발 규제를 강하게 받고 있으며, 서울 도시세력에 인접하여 침상도시로서의 기능이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의정부시에서는 침상도시적 성격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중랑천, 부용천, 백석천, 하청정비 사업과 경전철 건설과 43번 국도건설 등이 있다. 또한 미군시설의 반환으로 인한 반환 공여지 개발에 대한 논의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며 군입대한 장병들이 신체검사와 신병교육 훈련을 받는 306 보충대가 2014년 12월로 훈련소가 해체됨에 따라 의정부시에는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진행됨에 따라서 인구밀도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처럼 의정부시는 수려한 자연환경과 새롭게 구상되어지는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발전이 기대되는 도시이다.

2. 지역 현황 및 인구동향

의정부시는 현재 경기 북부의 중추 핵심도시로서,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도교육청 제 2청사 등이 이곳에 소재하고 있다. 동쪽은 포천시, 남양주시, 서쪽과 북쪽은 양주시, 남쪽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접하고 있다. 그리고 의정부시 면적 81.59km², 161,509가구(2009년 2월 1일), 총인구 430,769명(2009년 2월 1일), 행정동 15개, 법정동 13개, 의정부시의 인구는 2013년 현재 430,994명이며, 인구 밀도는 5,286명/km²이다.

그리고 성별 및 연령별 비율은 통계표 <표 1>과 <표 2>에 나타나는 것처럼, 0-14세 인구는 17.6퍼센트, 65세 이상 인구는 9.4퍼센트이다. 생산 연령층인 15세-64세 인구는 73.0퍼센트로 전국평균 72.8퍼센트보다 비율이 높고, 유소년 인구부양비는 24.2퍼센트로 전국 평균인 22.8퍼센트보다 높고, 노년 인구부양비는 12.9퍼센트로 전국 평균인 14.5퍼센트보다 낮다. 여자 인구 100명당 남자 인구를 나타내는 성비는 98.1로 여자가 다소 많다.

1963년 1월1일 시로 승격된 의정부시는 승격된 당시의 인구는 62,239명이었으며 관할면적은 72.88km², 11개 법정동리와 36개 자연부락을 갖고 있었다. 1980년 4월 1일 양주군 별내면의 고산리와 신곡리가 의정부시로 편입된 이후 14개 행정동, 55개 자연

부락으로 늘었으며, 관할면적은 81.59km² 확장되었고 1994년 7월 1일 장곡공을 장암동과 신곡동으로 분동하여 13개 행정동이 되었으며, 1995년 3월 2일 신곡동을 신곡1동, 신곡2동으로 분동하여 14개 행정동이 되었으며 1998년 10월 14일 인국 5,000명 미만의 과소동 통폐합으로 의정부1동과 의정부4동이 합동하였고 2003년 2월 3일 호원동을 호원1동 호원2동으로, 송산동을 송산1동 송산2동으로 분동하여 15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다.⁶²⁾

<표 1>은 의정부시의 성별 연령별 통계를 표로 만든 것이다.

<표 1> 성별 연령별 통계

구분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13	49.1	50.9	8.5	14.9	18.6	22.1	18.1	17.8
<성별>								
남자	-	-	9.0	15.5	18.9	22.5	18.3	15.7
여자	-	-	8.0	14.3	18.4	21.7	17.8	19.7
<연령>								
15-19세	52.1	47.9	-	-	-	-	-	-
20-29세	51.1	48.9	-	-	-	-	-	-
30-39세	49.8	50.2	-	-	-	-	-	-
40-49세	50.1	49.9	-	-	-	-	-	-
50-59세	49.9	50.1	-	-	-	-	-	-
60세 이상	43.5	56.5	-	-	-	-	-	-

그리고 현재의 각 지역 행정동들의 인구현황과 동시에 지역관할 면적도 <표 2>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62) 의정부 시정백서 2011 (의정부: 의정부시, 2011), 34.

<표 2> 2014년도 의정부시 행정동별 인구 현황

행정동	세대수	인구수			구성비			면적 (km ²)
		계	남	여	지역	남자	여자	
합계	169,671	431,112	212,947	218,165	100.00	49.39	50.61	81,54
의정부1동	10,441	20,268	10,382	9,886	4.70	2.41	2.29	1.23
의정부2동	13,049	28,107	13,934	14,173	6.52	3.23	3.29	2.48
의정부3동	6,833	14,050	7,053	6,997	3.26	1.64	1.62	0.72
호원1동	13,299	34,168	16,896	17,272	7.93	3.92	4.01	6.58
호원2동	13,296	38,088	18,753	19,335	8.83	4.35	4.48	4.19
장암동	8,142	21,687	10,474	11,213	5.03	2.43	2.60	8.94
신곡1동	16,692	45,491	22,445	23,046	10.55	5.21	5.35	2.56
신곡2동	16,532	47,965	23,298	24,667	11.13	5.40	5.72	2.82
송산1동	13,534	35,109	17,367	17,742	8.14	4.03	4.12	16.1
송산2동	16,521	46,135	22,527	23,608	10.70	5.23	5.48	4.95(민) 5.79(낙)
자금동	11,981	30,882	15,202	15,680	7.16	3.53	3.64	11.78
가능1동	11,175	24,999	12,535	12,464	5.80	2.91	2.89	3.97
가능2동	4,439	9,783	4,866	4,917	2.27	1.13	1.14	0.96
가능3동	4,980	11,034	5,572	5,462	2.56	1.29	1.27	4.76
녹양동	8,757	23,346	11,643	11,703	5.42	2.70	2.71	3.81

그런데 2012년에 들어오면서 의정부에 인구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의정부3동과 신곡1동, 의정부2동이 인구밀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의정부3동의 경우는 과거부터 도심의 기능을 해오는 곳으로 중랑천이 관통하여 남류하고 있는 곳이다. 의정부시에는 산지가 많기 때문에 도시를 개발하는데 있어 지형적인 제약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의정부1동과 3동의 경우는 하천 인근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일찍부터 개발이 시작되었다. 현재 의정부3도에는 소규모의 상가 및 단독주택이 밀집된 전형적인 주상복합지역이 나타나고 있으며, 의정부 시내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로데오 거리가 위치해 있다. 의정부시에서 로데오 거리 조성 사업이 실시되기 전에는 이곳이 '중앙로'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이러한 지명 역시 의정부 3동이 의정부의 중앙에 위치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 2015년도 의정부 연령대별 인구수 비율

연령		의정부시		
		인구수(명)	구성비(퍼센트)	성비(퍼센트)
합계	계	430,987	100.00	97.60
	남	212,878	100.00	
	여	218,109	100.00	
0-9세	계	37,527	8.71	105.42
	남	19,259	9.05	
	여	18,268	8.38	
10-19세	계	52,364	12.15	107.11
	남	27,081	12.72	
	여	25,283	11.59	
20-29세	계	55,975	12.99	104.43
	남	28,594	13.43	
	여	27,381	12.55	
30-39세	계	62,179	14.43	101.28
	남	31,287	14.70	
	여	30,892	14.16	
40-49세	계	80,029	18.57	97.28
	남	39,463	18.54	
	여	40,566	18.60	
50-59세	계	70,793	16.43	100.68
	남	35,517	16.68	
	여	35,276	16.17	
60-69세	계	37,755	8.76	89.30
	남	17,810	8.37	
	여	19,945	9.14	
70-79세	계	24,981	5.80	75.38
	남	10,737	5.04	
	여	14,244	6.53	
80-89세	계	8,118	1.88	52.51
	남	2,795	1.31	
	여	5,323	2.44	
90-99세	계	1,105	0.26	36.25
	남	294	0.14	
	여	811	0.37	
100-109세	계	125	0.03	37.36
	남	34	0.02	
	여	91	0.04	
110세 이상	계	36	0.01	24.14
	남	7	0.00	
	여	29	0.01	

또한 의정부 3동에는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이 위치해 있어 유동인구가 매우 높은 곳이며 최근에는 대형 백화점이 개점되어 더 많은 인구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상권의 변화와 더불어 인구의 변화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3. 의정부시의 영적인 상황

의정부라는 도시는 일찍이 군사도시로서 많이 알려져 있다. 미군 부대들이 많이 주둔해 있는 도시 중의 하나이다. 미군부대의 주둔으로 의정부시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이주민들의 유입이 많아지고 이와 관련한 일자리가 생겨나면서 의정부는 경기북부일대의 가장 달려화가 많은 지역 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반대로 의정부는 미국의 주둔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시가지개발이 제한되고 전쟁, 기지촌 등 좋지 않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 기지촌을 이야기할 때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양공주’ 혹은 ‘양색시’로 불리던 기지촌 여성들이다.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미군을 상대로 한 클럽들도 생겨났는데 클럽에서 미군을 상대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다. 그래서 도시 여기저기에 유흥업소들이 즐비하게 들어와 있다. 항상 기지촌 여성들은 일상적으로 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혈기왕성한 군인들을 상대하였고 늘 술을 가까이 하여야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폭력은 일상적이었다. 이와 같이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것은 ‘두레방’의 활동이다. 두레방은 1986년 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소속의 문혜림 선생이 기지촌 여성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설립하였다.⁶³⁾ 두레방은 이외에도 기지촌 여성에 대한 법률 지원이나 생계보조, 혼혈아동위 한 놀이방 등을 운영하여 여성들을 도왔다.

그러나 의정부 인구수 약 43만 명에 현재 의정부시에 등록 되어 있는 교회 숫자는 약 450개가 있다. 인구 대비 세우진 교회 숫자는 많이 있는 경우이다. 환경적으로 술집과 유흥업소들과 무당과 점집들이 많은 영적으로 어두운 참으로 어두운 도시에 교회의 숫자가 450개 정도가 된다는 참으로 소망적인 일이다. 그러나 450개 교회 중에 교회로서의 역할과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다. 대부분의

63) 의정부시 의정부문화원, 사진으로 읽는 의정부시사 (*Uijeongbu Read History with Photos*) (의정부: 의정부시 편찬위원회, 2014), 324

교회가 개척교회로서 큰 영향력은 없다. 그러나 소망이 있다. <표 4>에 나와 있는 의정부 시민들의 종교 성향 조사를 통하여 할 수 있듯이,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 기독교인 23퍼센트, 그리고 불교는 13.4퍼센트, 천주교 6.5퍼센트이지만 아직도 종교가 없는 시민들이 56.6퍼센트나 되었다. 아직도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의 숫자가 56.6퍼센트 이상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이 개척교회로 있지만 의정부 시민의 과반수가 불신자들인 것이다. 영혼구원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면 얼마든지 교회 부흥은 이룰 수 있다고 본다.

<표 4> 2013년도 의정부 시민의 종교 성향 조사

구분	믿고 있는 종교단위(퍼센트)				
	불교	기독교	천주교	기타	없음
2013	13.4	23.3	6.5	0.1	56.6
<성별>					
남자	12.5	21.8	5.8	0.1	59.9
여자	14.3	24.8	7.2	0.2	53.4
<연령>					
15-19세	6.4	32.0	2.8	0.0	58.7
20-29세	7.2	23.1	6.1	0.0	63.6
30-39세	9.9	21.4	5.8	0.3	62.6
40-49세	12.2	24.2	4.8	0.0	58.8
50-59세	18.4	21.3	8.1	0.0	52.2
60세 이상	22.0	22.2	9.8	0.6	45.4
<교육정도>					
초졸 이하	19.9	21.7	6.7	0.9	50.7
중졸	16.5	24.2	4.3	0.3	54.7
고졸	13.2	21.8	6.0	0.0	59.0
대졸 이상	9.8	25.6	8.4	0.0	56.2
<혼인상태>					
미혼	8.6	23.2	5.5	0.2	62.5
유배우자	15.9	23.4	6.7	0.1	53.9
사별	15.1	27.8	9.2	0.6	47.2
이혼	10.6	16.8	7.1	0.0	65.5

제 2 절 광명교회 역사적 배경

본 절에서는 광명교회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광명 교회의 역사를 광명교회의 설립기와 성장기로 나누어서 광명교회의 설립 배경 및 성장 원인을 살펴볼 것이다.

1. 광명교회 설립

지난 1992년 3월 8일 영적 불모지와 같은 의정부에서 최남수 목사가 광명교회를 개척하여 복회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성장하여 왔다. 처음 개척은 지하 교회에서 시작하였다. 그 다음해 호원동의 낡은 상가건물 23평을 보증금 천만원, 월세 40만원으로 본당과 지하교육관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교회 개척은 결코 쉬운 것도 쉽게 되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최남수 목사는 도봉산에서 하나님께 훈련 받은 대로 철저하게 기도로 교회를 세워갔었다. 그리고 건물 밖에 “3년에 의정부! 5년에 이 민족과 나라! 10년에 세계와 동역하는 교회!”라는 비전 현수막을 내걸었다. 그것을 비웃는 사람도 있었지만, 최남수 목사와 성도들은 3년 동안 의정부를 위해 기도하였고, 개척 5년에는 전국 방방곡곡으로 최남수 목사는 부흥회를 통해 민족교회를 섬기게 되었다.

그리고 10년여 즈음에는 세계선교대회를 개최하며 세계와 동역하는 교회 비전을 이루게 되었다. 환경과 조건은 너무나도 열악했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기도 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그래서 개척하고 40일 철야 기도를 7번 동안 했었다. 그리고 전 교인들이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였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곱 번 철야기도를 하는 중에 새 가족이 150여명이 들어왔던 것이다. 교회는 기도로 시작하여 시작된 전도로 통하여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해 그 좁은 공간에는 5부 예배를 드렸고, 그렇게 개척 2년 3개월 만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16억의 교회당 부지 600평을 구입하게 되었고, 그 해 1995년 12월 의정부시 호원동 회룡역 사거리에 호원동 성전을 건축하여 입당하게 되었다. 그 후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의 헌신과 열정적인 전도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되었다. 현재 의정부시 장암동에 본당 4천석 교회당은 2007년도 건축하여 광명비전센터라는 이름을

통하여 앞으로 한국교회와 세계 교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교회가 될 것이다. <표 5>는 광명교회의 연도별 교인수를 통계로 나타내고 있다.

<표 5> 광명교회 연도별 교인수

연도	성인			청년			중고등부	주일학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1996년 말	168	227	395	42	49	91	-	-	486	
1997년 말	221	349	570	35	61	96	-	-	667	
1998년 말	305	512	817	40	67	107	110	376	1,410	
1999년 말	374	1,014	1,388	68	82	150	120	420	2,078	
2000년 말	594	934	1,528	75	98	173	144	545	2,390	
2001년 말	661	968	1,629	120	128	248	174	492	2,543	
2002년 말	701	1,166	1,867	115	111	226	161	438	2,692	
2003년 말	886	1,618	2,504	95	106	201	190	435	3,531	
2004년 말	1,022	1,991	3,013	87	97	184	277	781	4,255	
2005년 말	1,421	2,300	3,721	79	107	186	331	830	5,068	
2006년 말	1,250	2,236	3,486	91	103	194	225	165	949	5,019
2007년 말	1,781	2,950	4,731	92	110	202	185	120	1035	6,249
2008년 말	1,965	3,266	5,231	120	141	261	250	130	1152	7,024
2009년 말	2,033	3,477	5,510	147	130	277	260	150	1407	7,604
2010년 말	2,253	3,734	5,987	134	178	312	265	155	1450	8,169
2011년 말	2,497	4,284	6,801	160	180	340	220	250	1,250	8,861
2012년 말	2,597	4,446	7,043	226	268	494	216	280	1,205	9,238
2013년 말	2,582	4,430	7,012	215	279	494	222	275	1,251	9,254
2014년 말	2,646	4,516	7,163	251	305	556	225	273	1,260	9,477

2. 광명교회 성장

광명교회는 그동안 많은 전도프로그램을 수용하고 활용하여 전도하는 교회로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실행하고자 하였다. 광명교회는 처음부터 전도하는 교회로 출발하였다. 1992년 3월부터 기도하고 시작하였다. 처음부터 매일 목사부부와 전 성도들이 길거리에서 외치는 외침전도와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축호전도를 하며 교회가 세워졌

다.

가. 교회 설립과 개척기(1992 -1994)

‘주시는 내로’라는 표어로 1992년도를 시작하였다. 그해 상반기 5월 3일에 총동원 전도축제인 ‘새 생명 축제’를 하였다. 한 사람이 30명을 전도 못하면 의정부를 떠나라는 전도에 목숨을 걸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300명 성도를 주시옵소서’ 표어로 111일 총동원 축제를 11월 1일에 하였다. 1993년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표어처럼 하나님이 놀라운 이들을 행하여 주셨다. 이 때, 최남수 목사는 ‘예수꾼 만들기’라는 성경공부 교재를 집필하여 성도들의 내적인 신앙을 다지고 전도의 사명을 고취 하였다. 그리하여 극동방송 ‘예수꾼 만들기’로 방송 강사로 방송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교회는 5월 2일 총동원 전도주일을 하였다. 이렇게 전도를 한 결과, 등록교인이 성인 200여명, 청년20여명, 중고등부 30명명, 주일학교 40여명이 전도 되었다.

1994년 6월 5일에는 지금까지 국내전도를 하였지만 이제부터 교회가 세계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다. 안창호선교사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하므로 열방을 향한 영혼구원 사역이 확장되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의정부 26만 명을 주시옵소서!’라는 표어와 2,000명을 만나서 한 사람이 10명을 예수님께로! 목표를 가지고, 116 총동원 전도 축제를 하였다. 하반기에는 ‘나도 한 명 전도하자!’ 표어와 등록교인 150명을 목표로 교인들은 더 열정적으로 전도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성인 230명 등록, 청년 22명 등록, 중고등부 25명 등록, 주일학교 50명이 등록하였다. 그 해 디모데 전도단을 만들었고, 교회가 부흥하여 교인들이 자발적인 동참으로 533평의 성전 부지를 계약하게 되었다.

나. 전도와 성장기(1995-2006)

1995년도 교회의 부흥과 함께 회룡역 사거리에 새로운 땅에 새 교회당을 건축하였다. 1996년도는 ‘어린이 천명을 예수님께로!’로 표어로 어린이 전도에 집중하였다. 그 결과, 주일학교 학생의 등록이 250명이 넘게 되었다. 1997년도에는 900일 금식기도로 2천년을 준비하는 기도의 씨앗을 심었다. 4월 27일에는 427 어린이 친구초청 잔치와 11월 2일에 더블 데이 총동원 전도로 장년 등록교인이 570명이 되었다. 그리고 청

년등록 96명, 주일학교 360명 등록을 이루었다.

1998년도는 '새 생명 전도축제'와 같이 본격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시기였다. 11월 8일 '행복한 사람들을 위한 축제'를 하였다. 성인등록 817명, 청년107명, 중고등부 110명, 주일학교 376명이 되었다. 계속되는 부흥으로 그해 6월에 회룡역 성전에 자녀세대를 위한 교육관을 건축하였다.

1999년도는 의정부 도시 복음화를 위한 중보기도 발대식 및 70인 전도특공대 조직을 하였다. 그리고 노인 무료급식을 매주 화요일마다 시작하였다. '7의 축복, 7배의 믿음'을 가지고 교구별 총동원 전도주일을 실시한 결과, 성인등록 1,386명으로 천명을 넘는 교회가 되었다. 청년 150명, 중고등부 120명, 주일학교 420명으로 성인이 570여 명이 등록하는 큰 부흥이 있었던 해이었다.

2000년도는 새 천년 축복 성회를 시작으로 '그대로 되리라'는 주님의 강력한 비전의 말씀으로 의정부 성시화를 위한 기도와 함께 전도를 시작하였다. 6월 10일에는 의정부 실내 체육관에서 5천명 초청 '예수사랑 큰잔치'를 하였다. 하반기 500명 전도를 목표를 8월 20일에는 추수 2,000 선포식을 하였다. 또한 의정부 성시화를 위한 700일 매일 기도회를 시작하였다. 그해 등록교인 성인 1,629명, 청년 248명, 중고등부 174명, 주일학교 492명이었다.

2001년에 '의정부 35만을 누가?'라는 주제로 '내가 2,500명'을 목표로 11월11일 '쌍둥이 Day'라는 전도 축제를 하였다. 등록교인 성인 1,867명, 청년 226명, 중고등부 161명, 주일학교 438명이 되었다. 2002년도에는 '하나님은 의정부를 사랑 하십니다'라는 메시지를 의정부 시민에게 전하는 '아이 러브 의정부' 운동이 시작되었다. 의정부 전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 각 교회를 방문하여 기도하는 등 의정부 성시화 운동이 본격화 되었다. 5월 12일부터 '아이 러브 의정부'를 시작하여 도시 전도단을 구성하여 의정부 37만 영혼만나기와 도시 순례단을 구성하여 의정부 땅 밟기를 하였다. 이와 함께 영적인 축매제로 구성된 도시 중보기도단 의정부 350개 교회를 찾아가 축복하였다. 이때 등록교인이 2천명이 넘게 되었다. 등록교인 성인 2,504명, 청년 201명, 중고등부 190명, 주일학교 435명이 되었다.

2003년도에는 9월 21일에 제 2차 '아이 러브 의정부' 선포식을 가졌다. 그리고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광명 새 생명 축제를 하였다. 이때 표어는 '1,000명의 성

도를 하나님께로!’ 그해 등록교인 성인 3,013명, 청년184명, 중고등부 277명, 주일학교 781명이 되었다. 이로써 교회 설립 11년 만에 성인 등록 교인이 3천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

2004년도에는 다섯 번의 예배를 드리고도 넘쳐나는 성도들로 더 이상 현재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 본당과 2층 교육관은 넘쳐나는 주일학교에게 내어 주고 장년들은 지금의 경민대학교 강당을 예배 처소로 임시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장암동 현재의 교회당이 건축되어 있는 부지로 성도들은 교회가 건축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1200명 기도부대를 조직하였다. 그해는 10개국 20명의 선교사를 초대하여 광명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최남수 목사의 비전이 도시구원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영혼구원은 나라와 세계로 확장된 것을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었다.

2005년도는 장암동 교회당 부지에는 지하 본당 4,000석 아시아 방주 모형의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였다. 추수 2005, 330 생명전도, 의정부 땅 밟기 및 전도, 4, 24 7,000명을 한자리에, 5, 29 축복의 날(블레싱 데이) 등 영혼 구원하는 교회로써 영원 구원에 모든 것을 바쳤다. 등록교인 성인 3,486명, 청년 194명, 중고등부 390명, 주일학교 949명이 되었다.

2006년에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 아래 비전센터가 건축되고 있는 동안에도 선교사 파송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또한 복음 전하는 것도 게으르지 않았다. 의정부 공설운동장에서 진행된 5월 21일 3만 명 전도집회를 하였다. 일명 5.21 로즈 데이(Rose Day) 전도집회는 ‘3만 영혼에게 복음을 듣게 하라’는 것이었다. 그 날을 위해 5주간 특별 새벽기도, 3주간 24시간 강단 릴레이기도, 3일 전 교인 금식기도, 1주간 무릎기도, 70일간 갈멜 산에서 기도로 준비하였다. 성도들의 열정과 기도 그리고 엄청난 물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광명교회 이기에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다.

다. 성장과 부흥기(2007-2011)

2007년 2월 4일 기공예배를 드린 후 22개월 만에 입당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자천석의 본당은 예배자로 가득 채워졌었다. 광명교회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신 모세

작전(1월7일-3월11일), 10만 영혼 전도발대식(4월 8일), 블레싱 데이(5월 27일), 40일 대 추수축복비전 선포식(7월 1일-11월18일)등, 쉬지 않고 열심히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해왔다. 그 해, 등록교인 성인 4,731명, 청년 202명, 중고등부 305명, 주일학교 1,035명으로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2008년도에는 Vision 120: 120만 영혼 전도발대식(3월13일-5월11일), 4,29 블레싱 : 429 전도축제, '아이 러브 의정부' 하반기 전도 발대식(9월 21일)을 통하여 '120만 영혼에게 복음을 듣게 하라'는 순수 복음 제시는 광명교회를 향한 민족 비전이였다. 작은 도시의 한 교회가 3년간(2008-2010년) 의정부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적인 120만 영혼전도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였다. 모든 광명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전도 비전에 동참하였다. 그해 등록교인은 성인 5,231명, 청년 261명, 중고등부 380명, 주일학교 1,152명으로 계속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

2009년도는 변화, 성숙, 창조라는 교회 표어로 시작하였다. 년 초에 민족과 도시 구원과 회복을 위한 3일(3월 10일-12일) 금식기도를 1,500명의 성도들이 참여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광명교회는 그해 주일학교에서는 5천명 어린이 전도축제(5월 9일), 장년들은 1만 어린양 축제(4월 26일-5월 9일, 5월 31일)를 가졌다. 전 교인들의 금식기도와 영혼구령의 열정으로 등록교인 5,510명, 청년 277명, 중고등부 410명, 주일학교 1,407명으로 교회가 영적인 부흥과 함께 숫자적인 부흥을 경험하였다.

2010년도는 '새로운 10년을 위하여 예수 닮아가기'위하여 2020 비전을 선포되었던 해였다. 1만 어린양 목장축제(3월 28일-5월 16일), '위 러브 의정부' 전도축제(10월 10일), 의정부 3만명 성시화집회(10월 10일)를 통하여 의정부 도시 복음화와 광명교회 부흥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그해 등록교인 성인 5,987명, 청년 312명, 중고등부 420명, 주일학교 1,450명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는 '영혼구원'과 '한국교회'를 위해 다니엘의 하루3번 기도(3월 14일-4월 23일)가 진행되었으며, 전도 준비를 위한 어죽특훈 특별기도회(1월 3일-1월 14일)를 통하여 전교인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복음증거의 삶을 준비하였다. 민들레 전도축제(3월 13일-4월 17일), 의정부 꿈꾸는 어린이 전도축제(5월 14일), 사도행전 88 기쁨충만 생명축제(9월 18일-10월 30일)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되었다. 그해 등록교인 성인 6,801명, 청년 340명, 중고등부 470명, 주일학교 1,250명으로 광명교회

가 개척할 때부터 영혼에 대한 시작이 더욱 힘찬 움직임으로 세계를 향한 복음과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다.

라. 부흥과 제도약기(2012-)

어느덧, 이제 광명교회는 설립된 지 23년이 되었다. 가장 성경적인 부흥을 사모하며 달려왔다, 앞으로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부흥을 모델로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을 위해 도전하며 달려 갈 것이다. 전도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그것을 교훈으로 가장 좋은 교회 바른 전도를 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며 모든 성도를 현장 선교사로 양육자로 세울 것이다. 영혼 구원의 열정에 불타는 교회, 전 성도가 현장선교사가 되는 교회로 질적, 양적 성장을 하는 제도양기로 삼고자 현재 부단히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올해로 설립 23주년이다. 광명교회는 새로운 제 2의 부흥의 출발기가 될 것이다. 이미 앞의 <표 5>에서 살펴보았듯이, 지난 23년 동안 교회가 전도를 통하여 꾸준히 성장하여왔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무엇보다 광명교회 성도들이 함께 복음전도를 향한 사명과 열정으로 지금까지 달려왔기에 놀라운 부흥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광명교회는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않는다. '살아 있을 동안 도전하라'는 슬로건을 외치며, 마지막 주님의 재림 날까지 오직 영혼구원의 사명으로 부장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받은 사랑과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 더 크게 쓰임 받기를 소원하고 있다.

제 3 절 광명교회 목회 현황

본 절에서는 광명교회의 목회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광명교회를 오늘날의 광명교회로 성장케 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광명교회의 목회 철학과 목회 비전을 심도 있게 다루어 보고자 한다.

1. 광명교회 목회철학

교회를 바로 이해하고 확고한 목회철학을 정립하면 바른 목회를 할 수 있다. 확

실한 목회철학은 목회에 생명을 걸게 한다. 분명한 철학이 있고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있고 내일의 비전이 명확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 목회철학이 정립되면 거기에서 목회전략이 나오고 목회 방법이 분명해진다.

가. 기도 중심의 교회

기도는 신자의 생활과 교회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영적 역동성이다. 무엇보다 기도는 교회성장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기도는 영적 부흥과 교회성장의 열쇠이다. 광명교회의 시작과 마침은 기도이다. 고난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철저하게 그 분만 의지하게 하기 때문이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강도사를 거쳐 가난한 목사가 되어 사역지도 없었던 최남수 목사에게 항상 고난은 떠나지 않았다. 고난과 연단은 오히려 오늘의 충만한 광명교회를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던 것이다. 그렇게 고난 때문에 오직 기도에만 매달리며, 기도할 장소를 찾아 도봉산을 오르던 때, 주님은 최남수 목사를 만나주셨고 교회 개척의 사명을 주셨던 것이다. 그리하여 최남수 목사는 가족과 함께 가정집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 아무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의 과정 속에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영적 불모지와 같은 의정부에서 광명교회라는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교회 시작은 결코 쉬운 것도 쉽게 되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최남수 목사는 도봉산에서 하나님께 훈련 받은 대로 철저하게 기도로 교회를 세워갔다. 기도한다는 것은 온전히 주님의 응답만을 기다린다는 뜻이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길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이다. 인생을 이끄시는 궁극적인 주권이 주님께만 있음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고백할 때 주님은 도우시는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게 인생임을 주님은 때마다 시마다 가르쳐 주셨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승리의 비결임을 연단의 과정을 통해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누군가를 찾아가서 상의하거나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고 한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주님께서 끊임없이 기도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었다.

광명교회가 지금까지 평안하고 부흥하며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까

지 기도의 원동력이 크게 작용하였다. 수영로교회 원로목사인 정필도 목사는 “교회는 성도들의 무릎으로 세워진다⁶⁴⁾”는 말을 하였다. 교회를 책임지는 담임목사가 겸손하게 기도하면 모든 성도들도 자연스럽게 기도에 동참하게 된다. 그래서 송귀옥 목사는 “기도는 사단의 세력을 꺾고 사단을 이기는 비결이다⁶⁵⁾”라고 하였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하고 기도에 생명을 건 목회를 하였다.

광명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다. 이것은 복음전도의 원동력이 되었다.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은 쉬지 않은 기도의 대행진이 있었기에 광명교회가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처럼, 지난 20년의 기적을 만들어온 광명교회 역사는 기도 대행진이었다. 본 논문의 뒷부분에 게재되어 있는 부록 1에서 볼 수 있듯이, 무수한 특별 새벽기도, 철야기도, 24시간 릴레이 강단기도, 중보기도, 산상 기도, 금식기도를 통하여 광명교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건강 한 부흥과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중에서도 새벽기도는 가장 한국적이다. 그 나라 교회의 90퍼센트 이상이 매일 새벽기도를 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광명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광명교회는 새벽기도로 뜨거워진 교회이다. 이른바 총동원 특별 새벽기도로 1년에 몇 차례 40일 특별 새벽기도로 유명하다. 새벽기도는 교회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교회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은 새벽기도라고 할 수 있다. 특별 새벽기도회 때는 수많은 기도의 응답이 쏟아진다. 새벽기도에서 구원의 확신과 은혜를 받아 변화된 교인들이 나와 전도한다. 즉, 모든 교회성장의 성패는 기도에 달려 있지만 새벽기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날마다 비상한 각오로 새벽기도에 열심을 내어 교회의 영적 민감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 있는 철야기도는 사람의 영혼을 울리는 말씀과 찬양팀의 영감 있는 찬양, 그리고 사도행전적인 성령 충만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소리 내어 뜨겁게 합심기도하고 중보 기도한다. 이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많은 성도들이 열정적인 기도로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고 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전 성도가 변함없는 24시간 릴레이 강단기도가 있다. 기도의 사명자들이 24시간 릴레이 강단 기도를 통하여 사단과 악한

64) 정필도,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서울: 두란노서원, 2005), 160-164.

65) 송귀옥, *개혁주의 기도학* (서울: 도서출판 크리폼, 1999), 152.

영들을 대적하며 성도들의 성령충만을 통하여 능력 있는 삶으로 인도하고 있다. 이것은 교회가 본당을 열어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광명교회는 누구나, 어느 때든지 항상 교회 본당에 와서 기도해 힘쓸 것을 독려 하고 있다. 각 개인이 기본 1시간씩 기도하며 그 이상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도제목은 광명교회의 모든 교구, 부서, 그리고 긴급 기도제목도 올려 기도하는 것이다. 모든 교구 성도들이 자발적인 참여와 뜨거운 기도를 통하여 가능할 수 있는 축복이다.

광명교회의 기도 사역 중에 하나는 예배 중보기도 사역이 있다. 이 사역은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사역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예배, 변화와 도전을 다짐하는 예배를 위하여 중보 기도자들이 뜨겁게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기도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의 눈물이 예배당에 채워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교회는 분쟁이 없다.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한다. 기도하는 교회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 갈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전도 중보기도 사역이 있다. 전도는 영적전쟁이다.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후방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 광명교회는 전도축제 기간에 작성된 오이코스과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는 전도자들을 위해 두 가지 형태로 중보기도 전도대를 운영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전도축제 기간 동안 중보기도 전도대이다. 이 중보기도 전도대는 몸이 불편하거나 나이가 많아 연로하여 현장전도에 나가지 못하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전도 기간 동안에 운영된다. 훈련된 전도사님이 본당에서 중보기도 전도대를 이끌어 가고 있다. 전도기간 동안 매일 정해진 시간에 본당에서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특히 전도를 하면서 늘 고백하는 것은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

나. 말씀 중심의 교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선포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만 한다. 광명교회는 개척 때부터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바꾸며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양육하여야 변화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짐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히 4:12)

교회는 말씀의 반석위에 건축되어지며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역하며 말씀을 이어가는 말씀 공동체이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 4:4)고 하셨다.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공생애의 사역 원리를 삼으셨다. 광명교회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 66권의 말씀을 절대 믿음으로 순종한다. 옥한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게 하며, 온전한 성도의 자아상을 확립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할 수 있다”⁶⁶⁾라고 하였다. 그래서 광명교회는 말씀목회에 힘쓰고 있다. 말씀 중심의 목회는 성령과 함께 말씀으로 이루어 가는 전인격적인 목회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가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이다. 말씀과 함께 성숙되어 가는 기쁨을 또한 삶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최남수 목사는 목사 안수를 받고 그의 나이 34세에 4복음서를 묵상, 연구하여 ‘예수꾼 만들기’라는 성경공부 교재를 만들었다. 이 교재를 극동방송과 아세아 방송에서 강의를 통하여 전국의 수많은 성도들에게 변화와 도전과 영적 성장을 도모하게 하였다. 이 예수꾼 만들기 교재⁶⁷⁾는 4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삶을 추적하는 것만이 아니다. 예수꾼 만들기의 근본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 삶 속에 용해됨으로써 잃어버렸던 예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인간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때에만 가장 행복하고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최남수 목사는 예수꾼 만들기 교재를 통하여 잃어버렸던 능력을 회복하고, 입술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이 회복되어 날마다 생명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성경 말씀 속에서 발견하여 그 것을 적용시켜 삶속에서 능력과 권세를 받다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찾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명은 죄인을 부르러 오심이며(마 9:13; 막 2:17; 눅 5:32),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심이며(눅 19:10; 요 12:47),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막 10:45). 그러므로 참 예수꾼은 영혼사랑이다. 말

66)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87), 143.

67) 참조. 부록 2.

씀을 훈련을 통하여 진정한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광명교회는 말씀을 생명같이 여긴다. 그 말씀을 순종하여 실천하기 좋아한다. 주일 1, 2, 3, 4부 예배, 주일 저녁예배, 수요 오전예배, 수요 저녁예배, 칠야 기도회, 새벽예배, 특별 말씀집회 등등의 말씀이 강론되는 곳에는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여 달려온다. 그리고 새 가족 성경공부, 말씀훈련학교, 평신도 훈련학교, 목자 사관학교, 독수리학교 등등 말씀훈련과 교육에 성도들은 기쁨으로 동참한다. 그 말씀을 지키려고 힘을 쓰고 있다.

다. 전도와 선교 중심의 교회

광명교회는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지역을 복음화 하는 비전을 갖고 있다. 광명교회는 의정부 지역만을 복음화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 북부의 인근 지역인 양주, 포천, 동두천 지역까지 복음이 선포되어 살기 좋은 도시, 범죄가 없는 도시, 깨끗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야만 한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영적, 사회적, 경제적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사회 전 영역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광명교회의 사명은 영혼구원이다. 광명교회의 존재 목적 또한 복음의 전파이다. 전도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을 항복 시키는 무기이다. 이 진리를 깨달은 광명교회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눅 4:18-19)는 말씀에 순종하였다.

의정부는 그 어떤 지역보다 복음이 필요한 도시이다. 한국 전쟁 이후 폐허로 변한 도시 안에 미군부대가 여러 개가 들어 있었다. 자연스럽게 도시는 군사시설로 발전이 더더지고 영적으로도 어두운 지역이 되었다. 그리고 의정부 지역 곳곳 마다 무당들과 점집, 절간들이 무수하게 자리 잡고 있다.

하나님은 이런 의정부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셨다. 광

명교회는 20년 동안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 세력들과 싸웠다. 마치 엘리야가 갈멜 산에서 이방신들과 싸웠던 영적인 전투와 같았다. 이 싸움은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이었다. 숫자로 보면 상황으로 보면 싸워 이길 수 없는 전투였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였다.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주셨다. 광명교회는 지난 20년 동안 의정부 도시에 있는 영적 대적자들과 싸웠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복음을 선포하였다. 거리마다, 가정마다, 만나는 모든 시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였다. 광명교회는 지난 23년 동안 전도행전⁶⁸⁾을 역사를 써왔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광명교회는 매년 1월부터 대심방을 시행한다. 그리고 2월말까지 각 가정을 심방하는 대심방을 마무리한다. 약 2개월 동안 전심전력하여 각 가정, 기업,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격려하며 축복한다. 그리고 난 후 3월부터 전교인 전도가 시작된다. 3월부터 5월까지 전도축제로 진행한다. 이렇게 교회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매년 전반기(3-5월), 하반기(9-10월)에 총력 관계 전도를 시행하고 있다. 광명교회의 전도는 총동원전도, 병원전도, 동서남북전도, 외침전도, 목걸이전도, 커피, 차전도, 노방전도, 아파트전도, 축호전도에 모든 성도들이 사역에 충성을 다하고 있다.

광명교회는 세계선교에 앞장서는 교회이다. 광명교회 건물 내부의 모형은 노아의 방주 모형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외형은 독수리의 날개의 모형이다. 이것은 구원의 방주로서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세계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 세계 각처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영혼구원을 위한 세계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다. 선교는 교회의 사명이다.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다.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선교함으로써 비로소 교회가 된다. 교회는 선교에 의해 또 선교를 위해 세워졌다.

성경은 성삼위 하나님이 “선교하시는(영혼구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증거한다. 광명교회는 지난 2011년 7월 10일에 세계선교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국제 구호를 위한 NGO BF World 단체를 정부로부터 허가 받았다. BFW(Blessing Flowers World)는 국경을 초월하여 정부기관으로부터 소외된 소수종족들이 집중되어 분포되어 있는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개발, 가난퇴치, 아동보호, 교육, 질병예방과 치료, 긴

68) 이에 대해서는 부록 3을 참조.

급구호 등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비영리 NGO 단체이다.

광명교회는 2020비전 70개국 세계선교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현재, 25개국 30가정 59명이 선교지에 파송되어 있다. 여기에는 목회자 선교사가정과 평신도 전문이 선교사들을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 외국인 예배를 통해 현재 국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훈련하여 선교하게 하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현지인을 국내로 부러 들여 훈련시킨 후에 다시 현지에 재파송하는 사역도 가능하다.

라. 목양 중심의 교회

목회는 온전히 하나님과 영혼의 구원을 위해 수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불신자를 회심시키는 일은 교회가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주요 목표가 된다.

목회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개인적인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다. 율법의 최고봉이 사랑인 것처럼 목회자가 준비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다. 인류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은 사랑의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기를 기뻐하신다. 이세의 아들 다윗을 보라. 이세에게는 여덟 아들이 있었지만 왜 그는 다윗에게 양 떼를 맡겼을까? 다윗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움켜 물면 생명까지 걸고 나가 그 양을 구해 왔다. 사자나 곰의 수염을 잡고 때려잡았던 그 용기가 어디서 났겠는가.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양의 새끼를 구해 낼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사자나 곰도 때려잡았던 것이다. 다윗의 믿음은 사랑에 기초한다. 양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 거는 그 사랑이 다윗의 믿음을 반석처럼 굳세게 했다. 그런 다윗이었기에 이세는 마음 놓고 양을 맡길 수 있었다. 다윗에게 양을 맡기면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는 “이처럼 모든 일에 교인들에게 대한 관심이 목회자의 가장 큰 관심사이며 마치 자녀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온유하게 교인들을 사랑해야 한다”⁶⁹⁾라고 하였다. 목회의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이 많이 맡기시면 큰 교회가 되고 적게 맡기시면 작은 교회가 된다. 많은 적든 모두가 주의 일이기 귀한 일이고 주님

69) Richard Baxter, *현대인을 위한 참된 목자 (Reformed Pastor)*, 고신석 역 (서울: 프리셋트 선교회, 2011), 119.

께서 맡기신 양 무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크나큰 은총이다. 광명교회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이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섬기는 교회이다. 또한 광명교회는 비록 천한 한 생명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귀히 여기고 사랑하여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목양하는 교회이다.

2. 광명교회 목회 비전

광명교회는 분명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시작하였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목회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기도중심의 목회, 말씀중심의 목회, 영혼구원의 전도중심의 목회, 목자의 마음으로 양떼를 살피는 목양 중심의 목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깨닫게 되었다. 지금까지 이 목회철학에 의해서 광명교회는 달려가고 있다.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날마다 순종하는 목회를 하고 있다. 이러한 분명한 목회철학 위에 세워진 보다 크고 구체적인 교회가 품고 있는 비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경기 북부지역의 복음화

광명교회는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지역을 복음화 하는 비전을 갖고 있다. 경기북부 지역의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광명교회만으로는 힘들다. 그래서 의정부 지역에 있는 약 480개 교회와 포천, 동두천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120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며 복음을 전하여 모든 시민들을 다 구원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모든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여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 주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광명교회는 의정부지역만을 복음화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 북부의 인근 지역인 양주, 포천, 동두천 지역까지 복음이 선포되어 살기 좋은 도시, 범죄가 없는 도시, 깨끗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야만 한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영적, 사회적, 경제적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사회 전 영역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나. 민족 복음화

경기북부 지역을 복음화 하는 일은 곧 우리 민족을 복음화 하는 일로 연결된다. 민족이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지속적인 기도와 진도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힘쓰고 있다. 민족을 복음화하기 위하여 광명교회는 농촌 미자립 교회를 돕고 있다. 조이 기도부대원들이 기도로 협력하고 있다. 매월 정기적으로 이 교회들에게 찾아가 중보기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그 어떤 것보다 권사님들로 구성된 기도부대원들의 뜨거운 기도로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민족을 복음화의 지름길은 모든 성도들이 뜨거운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사람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화의 시작이다. 그래서 광명교회는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자들을 세우게 되었다. 그리고 기도자학교를 통하여 사명자를 세우게 되었다. 교회는 7천 기도자를 세우는 것이다.⁷⁰⁾ 이 민족의 쓴 뿌리를 기도를 통하여 뽑아낼 것이기 때문이다. 기도자 7천을 통하여 이 민족의 재앙의 근본원인을 찾아 해결 할 것이다. 교회마다 기도자 7천을 세우고, 민족마다 기도자 7천을 세워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가 흘러 민족을 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다. 세계 복음화

세계복음화는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지상명령을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서 교회라면 필수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다. 광명교회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는 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광명교회는 전 세계적인 기도부흥운동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앞당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최남수 목사의 저서 ‘기도자 학교’를 통해 복음전파와 선교를 감당하는 기구로 세계 기도자학교를 세웠다. 세계 기도자학교는 세계 70개국에 기도자 7천명을 세워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것이다. 현재 기도자학교는 70개국 기도자학교 국내팀장과 선교지 팀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향후 각 대륙별 및 나라별 그리고 도시별 기도자학교를 통해서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될 것이다. 기도자학교는 민족의 재앙을 막고 축복을 앞당기며 70개 나라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

70) 최남수, 기도자 학교 (의정부: 광명교회, 2011), 145.

가 될 것이다.

둘째는, 단기선교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힘쓰고 있다. 매년 해외 아웃리치를 통하여 해외 선교정탐, 의료 봉사, 주일학교 사역 등으로 세계 각국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수개월 훈련과 기도로 준비한다. 그리고 선교사 파송을 통해 세계복음화를 힘쓰고 있다. 현재 25개국 30가정 59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세계 각처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셋째는, 의정부, 양주, 동두천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을 통해 세계복음화에 힘쓰고 있다.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와 일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훨씬 쉬운 것이다. 한국에 있을 때 복음을 듣고 헌신한 사람들을 교육하여 본국으로 돌아가 전도인의 역할을 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광명교회는 세계복음화에 주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본 장에서는 광명교회 지역 분석 및 목회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광명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의정부시의 지리적 상황, 인구동향, 지역의 영적인 상황 등을 살펴보면서 광명교회가 언제 어떻게 설립되어 지금까지 꾸준하게 성장하여 왔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중요한 핵심은 광명교회의 목회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도 중심의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 전도와 선교 중심의 교회, 목양 중심의 목회 철학과 목회 비전은 경기 북부지역의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지난 23년 동안을 전도하며 달려 왔었다. 본 장에서는 교회가 전도를 하기 전,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지역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을 통하여 전략과 전술이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광명교회는 지역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의정부시의 영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목회 철학과 목회 비전을 가지고 전도하여 왔다.

다음 장에서는 광명교회의 실제적인 전도 상황과 전도의 문제 분석과 함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5 장

광명교회의 전도의 실제

광명교회는 불신자들을 전도하여 부흥한 교회이다. 전도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결실을 맺어 성장한 교회이다. 전도는 목회에서 한 가지 일에 집중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도를 위한 목회현장을 분석하였다. 의정부시의 지역사회 분석과 광명교회의 23년에 걸친 교회성장을 살펴보았다. 이제 본 장에서는 광명교회의 전도에 관한 실제적인 진행과 그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제 1 절 광명교회 전도 집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명령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다. 이 사명을 다하려는 교회의 최대 몸부림이 바로 전도로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도의 목표는 영혼구원이다. 광명교회는 지난 23년 동안 전도 집회를 통하여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여 왔다. 본 절에서는 광명교회 전도 집회의 방향성과 기존 교회 전도 집회의 차별성에 대하여 다룰 것이다.

1. 광명교회 전도 집회의 방향성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감당해 온 것이 ‘총동원전도’이다. 같은 이름이 아니라 할지라도 형태와 대부분이 여기서 빌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동원전도’의 뿌리를 찾는다면 3 장에서 살펴본 인천 주안장로교회를 들 수 있다⁷¹⁾.

전도의 개념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교회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전

71) 나겸일, *전도집중 교회로 만들라* (서울: 규장 문화사, 2001), 98.

도에 집중한다”는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결과에 의존하기보다 우선 영혼구원과 복음의 확산을 위하여 교회가 갖고 있는 능력과 자원과 조직을 모두 활용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한다. 또한 중요한 총동원 전도의 개념은 “교회의 전체 성도와 조직을 동원하여 만날 수 있는 최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알린다”는 것이다.

총동원전도는 개개인이 전도 대상자들을 목표로 정하여 전도 지향점적인 것과 다수의 사람들과 지역사회를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 전도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개인과 교회의 철저한 준비 없이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따라서 교회 차원에서 전도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계획하고 총동원하는 일, 그런 다음 세상으로 나아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광명교회가 추구하는 전도 집회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표 6> 연도별 세 가족 등록 현황

연도	등록자 (명)	성별		직분별 등록현황					합계
		남자	여자	초신	세례	집사	권사	장로	
2009	1070	400	670	544	316	182	17	0	1070
비율	100퍼 센트	37퍼 센트	63퍼 센트	51퍼 센트	30퍼 센트	17퍼 센트	2퍼센 트	0퍼센 트	100퍼 센트
2010	1556	544	1012	861	412	256	27	0	1556
비율	100퍼 센트	35퍼 센트	65퍼 센트	56퍼 센트	26퍼 센트	16퍼 센트	2퍼센 트	0퍼센 트	100퍼 센트
2011	1885	422	663	543	292	218	22	0	1085
비율	100퍼 센트	39퍼 센트	61퍼 센트	51퍼 센트	27퍼 센트	20퍼 센트	2퍼센 트	0퍼센 트	100퍼 센트
2012	758	281	480	311	230	196	17	1	758
비율	100퍼 센트	37퍼 센트	63퍼 센트	41퍼 센트	30퍼 센트	26퍼 센트	2퍼센 트	0퍼센 트	100퍼 센트
2013	745	257	488	288	204	229	23	1	745
비율	100퍼 센트	34퍼 센트	66퍼 센트	38퍼 센트	27퍼 센트	31퍼 센트	3퍼센 트	0퍼센 트	100퍼 센트
2014	455	177	278	127	162	149	17	0	455
비율	100퍼 센트	61퍼 센트	100퍼 센트	26퍼 센트	37퍼 센트	33퍼 센트	4퍼센 트	0퍼센 트	100퍼 센트

가. 불신자에게 초점을 맞춘 전도

모든 행사나 일에는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시작한다. 그 일에 막대한 물질, 시간, 헌신, 등등이 투자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충하지 않는다. 또한 남들이 하니깐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다. 광명교회 전도집회는 복음에 대하여 낯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전도한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값싼 물건같이 아무렇게나 전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 <표 6>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광명교회 전도에는 초신자들의 등록이 평균 50퍼센트 이상을 넘고 있다. 통계 숫치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광명교회 전도는 기존의 교회의 성도들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전혀 교회를 다녀 본적이 없는 불신자들을 초청하는 전도이다. 이렇게 전도집회 당일에 초청되어 온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여 그들 스스로가 영접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행사는 불신자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나. 관계를 통한 전도

하나님은 창조라는 방식을 통하여 인간세계와 관계를 맺으셨다. 아담과는 창조적 '관계'로, 아브라함과는 선택적 '관계'를 맺어 일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 계명인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눅 10:27)와 황금률인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यो 선지자니라"(마 7:12)라는 말씀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도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준다. 이상만은 자신의 저서 *오이코스 전도폭발* 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다.

일명 오이코스 전도(Oikos Evangelism)는 가족을 중요시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전도방식이다"라고 하였다. 오이코스 전도의 포커스는 내가 아니라 '이웃'이다. 자연스러운 관계망을 이루고 있는 가족, 친지, 친구, 이웃, 직장 동료, 클럽 회원 등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다.⁷²⁾

72) 이상만, *오이코스 전도폭발*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1), 21-22.

광명교회 전도는 '관계 설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관계전도는 생활전도와 필요 중심 전도와 유사하다. 설명하는 방식만 다를 뿐 전도 스타일은 거의 같다. 이 전도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자의 일상생활이다. 전도자의 관계전도는 우리의 전 삶을 포함하는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한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참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실한 삶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전도방식이다. 광명교회는 막연하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표 7>에서와 같이, 개인별로 전도대상자인 오이코스를 개인별로 작성하게 한다. 개인별로 효과적인 관계전도를 위해서는 일상생활 가운데 진실함과 참다운 삶을 통하여 감동을 창출해내면서 전도하는 것이다.

<표 7> 개인별 오이코스 작성 카드

★ 오이코스 작성 카드 ★			
● 교구:		● 목장:	● 작성자:
NO	오이코스 명단	관계	연락처
1			
2			
3			
4			
5			
6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시 126:5-6).			

광명교회 모든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주위를 돌아보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만한 일들을 찾는다. 이렇게 관계전도는 광명교회의 핵심전도 전략인 셈이다.

다. 소그룹중심의 전도

구역모임은 한국교회의 전도전략 중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광명교회는 구역의 모임을 '목장'이라 명칭 하였다. '목장'은 지역별로 나뉘어 있기에 성도들 자신이 사는 지역 속에서 마치 전도자나 선교사로 사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은 거점을 마련하길 하시며 그 지역을 복음화 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목장모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전도이다. 각자가 자신의 친구, 이웃을 전도할 계획을 세우고 그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어느 시점에 전도 대상자를 목장으로 초청하는 것이다. 랄프 네이버(Ralph W. Neighbour, Jr)는 그의 책 *셀목회 지침서*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잠재적인 신자들은 사랑과 관심을 통해 소그룹에 초대되며 결국 회심하게 되어 있다. 그들은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그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았다.⁷³⁾

그래서 광명교회는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목장을 중심으로 목원들 개개인이 전도대상자인 오이코스를 작성하여 목장이라는 소그룹을 통해서 전도대상자들을 작성하여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함께 전도를 진행한다. 목장 소그룹은 또 하나의 작은 교회로서의 전도 축제를 진행하고 있다.

라. 전 교인의 영적성숙을 위한 전도

전도 집회는 '전도'라는 대명제를 중심으로 하는 구심점이 생긴다. 따라서 성도들에게 "기도에 대하여", "전도에 대하여", "성령 충만에 대하여" 날마다 강조한다. 이렇게 전도의 영적 기류가 온 교회 안에 형성되게 된다. 모든 성도가 '전도'라는 대명제 앞에 하나가 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시킨다. 매 시간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전도를 하다보면 한 사람의 회심이 결코 쉽지 않음을 경험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73) Ralph W. Neighbour, Jr, *셀 목회 지침서 (Where do We Go from Here?: a Guidebook for Cell Group Churches)*, 정진우 역 (서울: NCD, 2000), 229.

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고 전도에 대한 새로운 도전도 받게 되며 성도 간에 서로 협력도 필요함을 깨닫게 된다. 전도를 통한 결단과 결실로 전도하는 사람의 영적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전도를 통하여 성도들이 한층 성숙해지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영적 성숙을 경험하게 되었다.

광명교회는 전도 집회를 앞두고 특별 새벽기도, 24시간 강단 릴레이 기도, 교구별 기도회, 금식기도, 전도 세미나 등등 성도들의 영적 무장을 위해 항상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모든 교인들이 전도에 자신감을 갖게 된다. 이것은 광명교회의 가장 큰 영적인 자산이 되었다.

2. 광명교회 전도의 차별성

한국교회 전도 방법에는 몇 가지 형태가 있다. 먼저,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전도 전략은 낱짜와 시간을 정해서 불신자들을 초대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는 형태이다. “꼭 한번만!”, “와 보라”, “당신을, 잔치에 초대합니다”라는 문구들이 그런 특성을 잘 나타내준다.

둘째는, 대각성 전도를 통한 전도전략이다. 이것은 이웃초청 잔치를 당일 하루 행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담임목사를 비롯한 유명 강사를 초빙하여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접하게 함으로써 그 시간에 전도대상자들을 결신하게 하는 방법이다.

셋째는, 태신자 전도주일 전략이다. 태신자란 “믿음으로 마음에 잉태한 전도 대상자”란 뜻이다.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과거에 신앙을 가진 경험이 있더라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존 신자가 구원을 목적으로 성령 충만한 열정을 가지고 그를 위해 꾸준히 기도하는 진통을 겪으며 잉태하는 신자가 태신자이다. 태신자 전도는 준비하는 기간 중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작성한 태신자들을 전도주일에 초청하여 결신하도록 하는 전략이다.

넷째는, 세 생명 전도운동이다. 세 생명운동은 구원받기로 작성된 자들, 숨겨진 자들을 찾아나서는 것이다. 전도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전도 대상자들에게 심어주는 운동이다. 전도할 대상자들을 기도하면서 물색한 후 세 명 이상의 세 생명의 대상 명단을 작성하게 한다.

이처럼, 한국교회 전도방법과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다. 광명교회는 1992년도부터 현재까지 매년 2회 씩 전도 축제를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전도를 통하여 불신자 전도 및 교회 성장을 위한 하나의 방법적인 면으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광명교회 전도 집회는 기존의 총동원 전도방법과 많은 차별성을 가지는 데 다음과 같다.

가. 광명교회는 막연하게 전도하지 않는다

종종 전도를 경쟁적, 과시적으로 실시하는 교회들이 있다. 또는 다른 교회들이 전도축제를 한다고 하니깐, 우리도 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생각으로 철저한 계획과 준비성 없이 시행하는 교회들이 종종 있다. 분명한 목적과 가치를 설정하지 않는다면 전도는 하나의 행사가 된다. 아무런 열매와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개인별로 분명한 전도대상자인 오이코스를 정하여 전도를 하게 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표 7>과 같이 개인별로 전도대상자를 정하여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전도한다. 우선, 전도대상자인 오이코스를 정하였다면, 그들의 마음과 환경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한다. 그런 다음에는 찾아가서 만남의 시간을 가진다. 작은 선물 등을 전달하여 감동을 주며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한다. 그런 후 목장 소그룹이나 교회로 초청하는 전도 방식을 통하여 전도를 한다. 그리고 광명교회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 절대로 남들이 한다고 해서 하는 행사가 아니다. 교회에 사람들로만 가득 채우기 식의 행사가 아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동기와 가치로 전도를 시행하고 있다.

나. 광명교회는 특정한 사람만 전도에 참여지 않는다

전도는 특정한 소수가 아닌 전 교인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일부 교인들만 참여할 경우에는 교회 안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 모두가 전도자임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전도에 대한 인식은 ‘말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전도는 삶을 통하여 거룩한 사랑의 영향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제까지 한 사람도 전도해보지 못한 사람도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하여 전도에 동참하게 한다.

전도는 일상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타인을 위해 희생하며 양보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전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누구나 전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 보통 교회에서는 성가대원들, 예배 안내담당, 주일학교 교사들 등등의 예배 봉사자들이 전도축제에 동참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그러나 광명교회에서는 성가대원이든, 안내 담당이든, 주일학교 교사이든, 모든 예배 봉사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전도에 확신을 갖게 되었고 담대하게 전도에 임할 수가 있게 되었다.

다. 광명교회는 다른 교회 성도들을 데려오지 않는다

전도 주일 행사를 하게 되면 예외 없이 인근 다른 교회의 출석 성도들이 영입되어 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소위 문제가 있는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거나 본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중에는 아직 신앙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 경우에는 대부분은 억지로 데려온다고 해서 쉽게 교회로 정착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구원의 마음에서 보다는 드러내기 위한 과시적인 전도와 교회 내에서 과열 경쟁으로 인한 잘못된 전도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한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써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롬 15:20)고 했다. 이 말씀은 남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경계하는 내용이다. 교인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교회 간에 분쟁과 말썽의 소지가 발행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다. 절대로 이런 일들은 있어서도 안 되며,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광명교회 전도는 불신 영혼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광명교회로 전도되어 온 성도들의 비율을 보면, 초신자들이 약 50퍼센트 가량이 등록된 것을 볼 수 있다. 아직도 경기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불신 영혼들이 많이 있다, 그들을 어떻게 하면 복음을 다 듣게 하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구원케 할 것인가에 대한 전도에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라. 광명교회는 젊은 층의 전도대상자들이 많다

오늘날 전도는 참으로 어렵고 힘들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누군가에게 전도되어 교회 한번쯤은 갔다가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예전에는 교회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숫자도 지금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 젊은이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것을 아시아를 대표하는 전문 미래학자인 최윤식은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2*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역동성, 교인규모, 재정여력 등 거의 모든 것을 상실한 한국교회는 2050년 초고령화된 한국이라는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해야 한다. 자연스럽게 한국교회는 초고령화될 가능성이 크다. 자칫 잘못하면 초고령화된 한국 사회보다 더 초고령화된 가능성이 크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한국은 65세를 넘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46퍼센트를 차지하게 된다. 초고령화 사회란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퍼센트를 차지할 때 쓰는 용어인데, 이를 감안하면 46퍼센트는 엄청난 비율이다.⁷⁴⁾

오늘날 시대는 점점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게 되었다. 보통의 교회들은 나이든 노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어린아이나 젊은 세대들은 교회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광명교회는 그와 반대이다. 새 가족 등록 비율에서 30대-50대 층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마. 광명교회는 일회성 전도행사로 끝나지 않는다

전도 축제라는 큰 행사를 긴 시간동안 집중하게 되면 성도들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게 한다. 그리고 전도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교회 전체가 허탈감과 공허감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총동원 전도를 한해에 한번 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헌신과 함께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총동원 전도가 지속적인 전도로 이어지지 못하고 '반짝 세일'처럼 일회성으로 끝날 때에는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엄청난 허탈감과 무기력함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그래서 광명교회는 전도를 성도들에게 1년 365일 동안 관계 전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한다. 그리고 광명교회가 개척되어 지금까지 전도는 매년 2회 이상씩 진행

74) 최윤식, 최현식,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2*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5), 66.

하였다. 모든 성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전도 할 수 있도록 전도의 생활화하며 전도자들을 보다 체계적인 훈련과 양육하는 데까지 이어지도록 한다. 광명교회 모든 성도들은 전도 대상자들 걱정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날마다 시간을 내어 사랑과 섬김으로 지속적인 복음 전도에 힘쓰고 있다.

제 2 절 광명교회 전도 집회의 유익

지난 23년 동안 광명교회는 전도집회를 매년 2회 이상 실시하였다. 광명교회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동안 전도집회를 통하여 얻게 된 유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본절에서는 그 유익들을 논의할 것이다.

1. 질적 성장

첫째로, 전도 집회를 통하여 성도들의 질적 수준이 놀랍게 향상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각 개인의 신앙의 성장이 있었다는 것이다. 성도들 가운데에는 오래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교회의 직분자들 중에는 세월이 가면서 열정이 식고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신앙생활이 종교적인 행위에 머물러 있어 하나의 타성이 되어버린 것이다. 전도 집회는 이러한 성도들에게 인간창조의 목적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다. 교회는 우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다시 듣게 함으로써 모든 성도들에게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주님을 향한 복음의 열정을 갖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으로 무장하여 다시금 불을 지피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교회의 전 성도들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특별 새벽기도, 금식기도, 간증집회, 릴레이 기도 등등으로 전도 집회를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하며 또한 영적으로 충만을 위해서 자신을 무장시키는데 열심을 내며 동참한다. 이로써 모든 성도들에게 전도에 동참하게 하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함으로 영혼구원의 기쁨

과 감격을 누리게 하고 있다. 모두가 처음엔 어려워하며 힘들게 여긴다. 그러나 전도를 실행하면서 얻게 되는 전도의 열매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으로 만들어 준다. 또한 전도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는 효과를 가지게 하였다. 모든 성도들은 삶에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듯, 전도 집회는 우선 잡자고 있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대각성을 하게 한다. 그리고 다시금 이 땅위에서 사명감으로 무장시켜 사명자로, 복음전하는 전도자로 사람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게 한다. 만일 성도들이 전도의 사명에 대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존재의 목적을 깨닫지 못했다면 성도들의 전반적인 영적인 수준을 향상되지 못했을 것이다.

둘째는, 전도 집회를 통하여 많은 가정이 복음을 하나가 된 것이다. 어느 교회든 외롭게 혼자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 광명교회도 이른 바 “짝 가정”들이다. 남편이든, 아내이든, 부모님이든, 형제이든지 어느 한쪽이 아직 믿음을 가지지 못한 가정들과 성도들이 많이 있다.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대상이 가족일 것이다. 부모님, 형제, 배우자를 전도하기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다. 성경은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눅 4:24)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란 쉬지 않다는 것이다.

전도 집회는 이런 의미에서 가족 전도의 절호의 찬스가 된다. 전도 집회는 일반적으로 형식을 갖춘 주일 예배나 부흥회와 달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구성해 놓는다. 그래서 안 믿는 가족들, 친구, 이웃들이 큰 부담 없이 참석하여 복음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제공하는 것이다. 실제로 광명교회는 전도 집회를 통하여 많은 불신 가족들, 남편, 아내, 형제, 친구, 이웃들이 초청되어 부담 없이 복음을 듣게 되어 가정들이 그리고 이웃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 가정의 복음화는 이웃을 복음화로 이어지며 그 다음에는 도시 복음화로 진행될 시초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도 집회를 통하여 가정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질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2. 양적 성장

전도 집회를 통하여 교회가 양적인 성장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진정한 교회에

서 교회가 교회되기만 하면 교회 성장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였다. 교회를 하나의 조직이 아닌 유기체에 비유한다. 그것은 교회와 몸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유사성 때문이다. 우리의 몸이 성장하려면 무엇보다도 모든 지체가 건강해야 하는 것이다. 충분한 영양분을 골고루 잘 섭취하고 적당한 운동을 통하여 건강한 몸이 유지될 수 있다. 또한 생명체는 또 다른 생명체를 탄생시킬 때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세포들의 끊임없는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럴 때 몸은 성장 할 수 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하고 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무엇보다도 건강해야 한다. 교회의 건강은 균형 잡힌 성장을 말 할 수 있다. 특정한 어느 것 하나 잘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는다. 교회로서의 성장은 전도하나만으로 말하지는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광명교회는 지난 과거 23년 동안 모든 성도들에게 전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동시에 증인된 삶을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한 요인이 되었다.

광명교회는 지난 23년 동안 복음 전도 집회를 통하여 매년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의 전도 대상자들이 교회에 방문하였다. 이중에서도 새 가족으로 등록하여 교회로 정착하는 수도 적지 않게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교회의 질적인 성장과 함께 양적인 성장도 오게 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처럼, 전도 집회는 광명교회의 지난 23년 동안의 교회사에서 교회의 질적 성장을 가져오는 큰 역할을 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 성장의 개념에서 성장을 수치에 목적을 두고 전도 집회를 하면 부정적인 현상을 초래한다. 양적인 성장을 추구하다 몰량주의로 간다는 것이다. 이종윤은 “한국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돈이다”⁷⁵⁾라고 말했다. 믿음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목회하려는 생각은 참으로 위험한 것이다. 순수한 동기의 영혼구원을 위한 전도가 아니라 돈에 의한 세속적인 방법이 동원 된다는 것이다. 일반 사회의 기업 경영방식을 전도에 접목하는 마케팅 전략, 프로그램의 상품화, 등등으로 비 성경적인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 성경적인 개념들과 방법들을 철저히 주의해야만 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장해야만 건강해 질 수 있다. 교회가 성경적인 방법으로

75) 이종윤, 전호진, 나일선, *교회성장론* (서울: 엠마오출판사, 1986), 25.

성장해야 영적인 영향력을 제대로 끼칠 수 있는 것이다. 교회는 성경적인 근거 위에 성장해야 한다. 교회를 살아 있는 유기체로 이해하는 성경적 진리는 곧 성장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해 준다. 교회성장이란 것이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구원시키는데 기초를 두고 있음은 성경적인 기본적인 자세이며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다(눅 19:20).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부름의(창 3:9) 모습이 바로 교회성장의 근거 일 수 있다. 광명교회는 지금까지 전도 집회를 진행하면서 비 성경적인 개념과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았다. 양적인 성장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타 교인들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전도하지도 않았다. 수적인 성장은 모든 성도들의 땀과 희생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열매인 것이다.

제 3 절 광명교회 전도 집회 준비와 진행

전도 집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기 위한 사역이다.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큰 잔치를 배설하고 복음에 이방인 된 자들을 초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 집회의 의미이다. 현재 광명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1년에 두 차례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 명칭을 좀 더 부드럽게 사용하므로 지역 주민들에게 거부감을 덜 주는 용어를 때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집회의 준비과정,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며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사전 준비

광명교회의 전도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하지 않는다. 종종 전도를 경쟁적, 과시적으로 실시하는 교회들이 있다. 그러나 광명교회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 사람의 머리 수 채우기에 바쁜 행사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동기로 출발한다.

전도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전도를 위한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야 한다. 모든 전도 집회의 성공과 실패는 준비에 달려 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 집회를 세밀하게 사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가. 목표 및 주제 정하기

매년 실시하는 전도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목표를 분명히 정하는 것과 주제를 잡는 것이다. 전도 집회는 무차별적 다수가 아니라 차별화된 사람들, 특히 전도 대상자로 작정하고 관계를 통하여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교회에 데리고 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는 것을 목표로 정해야 한다. 교회는 교인 전체로 초청 대상을 정하고, 그 다음 교구별로 대상자를 설정하고 교구 내에서는 지역별, 목장별, 가정별로 대상자를 세밀하게 파악하여 전도 대상자들을 전도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도록 목표를 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와 함께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다니는 장소에서 노방전도 및 전도 등등으로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전하고 집회를 알리며 교회로 초청하는 것도 필요하다. 목표 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제를 잡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주제는 교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매개체로 활용되어진다. 주제는 단순하면서도 분명하게 와닿는 것이 전도의 동기 부여에 큰 효과가 있다.

나. 강사 선정하기

전도 집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강사 선정이다. 전도 집회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강사를 통하여 메시지가 전달되기 때문이다. 전도 집회의 메시지는 집회의 결과를 좌우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전도 집회는 그 자체가 성도들의 영적 대각성과 불신자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메시지는 이 두 가지 목적에 맞아야 하는 것이다.

어떤 강사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준다. 그래서 전도 집회를 준비하면서 집회의 주제와 목표에 맞는 강사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대부분 초청되어 온 사람들은 교회에 대하여 낯설어 하는 경향이 있다. 어색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강사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친근하게 그들을 복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강사들은 신앙이 좋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연예인들이나 사회 유명 인사들을 세우는 경향이 많다. 연예인과 사회 유명 인사들이 강사로 세워져 초청 당일에 불신자들에게 끼치는 영향과 유익은 엄청난 것이다. 그들이 살아온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하여 지금까지 어떤 인도하심

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간증하는 것은 기존 신자들에게 영적 각성과 함께 불신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강사들을 세워보면 복음 초청적인 메시지가 약한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적인 메시지를 통하여 불신자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여 결신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약할 수밖에 없다.

때로는 한국 교회의 탁월한 부흥 강사를 세워보았지만 어떤 때는 전도 축제에 맞지 않는 설교를 할 때가 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집회인데, 그 방향성을 잃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국의 교회적 상황에서 부흥 강사는 많지만 복음을 쉽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는 전도 설교자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강사 선정은 집회의 열매와 결과를 좌우 할 수 있는 부분임에 신중하게 선정해야 한다.

2. 전도 집회의 실제

이제는 실제 광명교회가 전도 축제를 진행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전도축제의 개요, 업무담당, 전도축제 일정, 표어 및 선서문, 전도대상자(오이코스) 인도 방법, 기도제목, 그리고 세부일정과 예산 등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진행방법을 다루고자 한다.

가. 개요

전도축제의 명칭, 목적, 일정, 목표, 방향성, 그리고 이번 전도축제의 특징, 유의사항을 통하여 이번 전도축제의 전반적인 것들을 설명하여 성도들에게 전도에 동참하게 한다.

명칭: 2010년도 전반기 1만 어린양 전도축제 개요

목적: 목장의 존재목적이 관계전도를 통한 영혼구원 사역임을 일깨우며 모든 성도가 목장에 참여 소속되게 함으로 광명교회 비전인 120만 영혼을 구원, 도시복음과, 민족복음화, 열방선교비전을 세우데 있다.

일정: 2010년 3월 28일(주일)-5월 16일(주일) 8주간

목표: 첫째, 모든 성도가 목장에 참여하게 하여 목장 공동체의 은혜와 역동성을 체험하게 한다.

둘째, 건강한 목장모임을 통하여 작성한 오이코스 및 새 가족의 정착 기회로 삼는다.

셋째, 모든 성도가 오이코스를 작성하여 1년 오이코스 등록 70퍼센트 열매를 목표로 한다.

넷째, 건강한 모델 목장을 통하여 새로운 리더가 세워지므로 또 하나의 건강한 목장으로 분가를 한다.

방향성: 첫째, 광명의 모든 성도들이 관심과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전도의 열매를 기대한다.

둘째, 전도 매뉴얼(프로세스) 통한 단계적 전도훈련 방법으로 모든 성도들의 관계전도의 효과 및 전도의 자신감 향상을 기대한다.

셋째, 지속적인 관계전도 훈련과 노방전도를 결합 전도축제로 포괄적인 전도방법과 복음 확장의 사명을 갖게 한다.

넷째, 각 교구별, 팀별 모임을 통한 긴밀한 협조와 팀워크로 창조적인 효과를 기대한다.

전도축제의 특징: 첫째, 주일학교와 청년교구, 장년교구와의 연계를 통해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팀워크 중심의 전도축제가 되게 한다.

둘째, 광명교회 모든 교역자 및 성도들의 동참으로 영혼구원, 도시 복음화의 필요성을 갖게 한다.

셋째, 목장 미 참석 성도가 전도 축제를 통하여 목장으로 연결, 참여되어 신앙 정착 및 사명을 갖게 한다.

넷째, 평신도 위원회 조직을 통하여 평신도 일꾼 발굴하여 사역의 장을 넓힌다.

다섯째, 다양하고 건강한 모델 목장을 제시하여 연약한 목장을 도움의 기회를 갖게 한다.

전도축제의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장중심의 관계중심의 전도이므로 목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오이코스작성, 만남, 목장초청, 교회초청 등등, 활발한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장, 우선적으로 교구별 건강한 목장 세우기

둘째, 과중한 작성 부담을 줄여서 자율적이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게 한다.

그리고 작성한 인원에 비해 실제 등록자와의 차이 누수현상 줄인다. 실속 있는 관계 전도와 노방전도를 통한 다양한 전도를 유도하게 한다.

나. 업무 담당

각 분야별로 전도축제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 평신도들과의 전도의 원활함을 유지하게 한다. 전도축제 각 분야별 주요 업무를 나타내는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교역자, 평신도간의 업무구분을 통하여 세밀하게 전도 축제를 진행한다.

<표 8> 전도축제 각 분야별 주요 업무

업무구분	교역자	평신도	주요업무
기획	· 목양행정(김태근) · 전도국장 (김수범) · 총무 (최모훈) · 회계 (박기술)	김병국, 문제만 김홍식, 현경만	전도축제의 기획, 준비, 진행, 평가 보고 등 제반사항 조정작업, 대내외 관련업무, 예산 및 결산 작업
회계	박기술	김경숙 류미진	전체예산 관리 및 지출, 스폰서확보
전도대상자 작성	정지훈(정) 정성영(부)	김상호(정) 최남철(부)	오이코스(전도대상자)에 관한 전반적인 진행, 교구별 작성현황 부스 설치와 진행 평가, 자료보관
관계 맺기 (만남)	이광진(정) 주경인(부) 나성국(부)	오경권(정) 송주인(부)	전도 축제를 위한 관계 맺기(만남) 진행 및 목장초청, 교회초청 등의 명단 관리
교회초청	임윤호(정) 박의암(부) 김유정(부)	이강범(정) 임재규(부)	교회초청 교구별 동원방안 및 교회초청 당일행사에 관한 제반사항 준비, 진행, 평가
후속조치	신부식(정) 서형화(부)	최성균(정) 김진욱(부)	새 가족 심방, 정착, 양육, 봉사
준비기도	나성국(정) 안관석(부)	한영철(정) 강선애(부)	예배, 기도회시 기도제목 공유 및 평신도 증보기도 사역
실행	김유정(정) 안특수(부)	김명훈(정) 이충립(부)	전도축제에 관련된 홍보, 영상, 선물배부, 등 전반적인 진행사항

<표 9> 전도축제의 세부 일정사항

행사 내용	기간		진행 내용	시간	평신도탑
1. 발대식	3/28		목장축제 개최예배	주일 저녁예배	총무, 서기
2. 전교인 3일 금식기도	3/29-31		전 교인 목장축제 위한 3일 금식기도	3일간	총무, 서기
3. 전도축제 실행지침교육	3/24-5/12		목장 축제 실행지침 교육	교구별 목자 모임시	작은 목자
4. 교구별 전도 특공대 동력화	4/1-5/13		목장 축제 교구별 전도 전략회의 및 일꾼 동력화	매주 목요일 저녁8시	80인 특공대
5. 오이코스 찾기 및 작성 주간	3/29-4/11		목장별 오이코스 찾기 및 작성	목장별 및 주일전교인작성	작은 목자
6. 간증	4/4-5/9		간증자 세움 (주일 예배-영상)	영상 간증 (주일 낮 예배) 현장 간증 (주일저녁, 철야 예배시)	총무, 서기
7. 만남주간	1차	4/12-18	교구-목장별 다양한 관계 맺기 이벤트	교구-목장별	작은 목자
	2차	4/19-25			
	3차	4/26-5/2			
8. 목장초청 이벤트준비	4.28(수)		목장초청을 위한 장식 준비(풍선아트, 레크리에이션)	수요 낮 예배시	작은 목자
9. 목장초청 주간	1차	5/3-9	목장 초청 잔치	교구-목장별	작은 목자
	2차	5/10-15			
10. 교회초청 주간	5/16		교회초청행사	주일	총무, 작은 목자
11 교회집중 등록주간	5/23-30		교회집중 등록주간	주일, 수요일, 철야예배시	총무, 작은 목자

다. 전체 세부 일정 사항

전도 축제의 진행을 위하여 세부일정표를 통하여 보다 면밀하게 전도 축제를 준비하여 모든 성도들이 원활하게 전도축제에 동참하도록 한다. 그리고 모든 교인인 전

도 집중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전교인 3일 금식기도회와 세부실행 지침을 교육하여 모든 성도들이 전도에 대하여 부담감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다.

매주 목요일에는 전도특공대들을 훈련을 통한 보다 강력한 일꾼 동력화를 만들게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이코스(전도대상자)들을 걱정하게 한다. 그리고 간증을 통하여 전도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만든다. 제 1차, 제 2차, 제 3차에 걸쳐서 오이코스(전도대상자)를 직접 만남의 시간을 갖게 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과의 관계를 맺게 하여 교회로 초청하게 만든다. 초청된 새신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교회가 이들을 잘 정착하여 교회의 일원화를 시킬 수 있을까에 관한 준비를 한다.

<표 10> 전도 축제 예산 및 결산표

항목	항목	예산산출내용	지출 예산	지출
홍보	브로슈어	홍보 브로슈어(4,000장)		980,000
	가이드 북	가이드 북(1,200권)		830,000
	현수막	대형현수막(옥외)	650,000	
		작정 및 만남 현수막	150,000	
		초청 현수막	150,000	
		본당 입구 로비 현수막	400,000	
		본당 강대상 뒤 현수막	800,000	
	소계		1,350,000	
	작정 카드 및 초청카드	오이코스 작정카드(6천장)	400,000	340,000
		오이코스 교회초청엽서 (16,000장)	600,000	500,000
		전도 스티커(14,000장)		320,000
소계		1,750,000		
강사	5월16일(축제일)	주일 낮 강사 / 주일저녁 강사	6,000,000	
	5월 23일 (집중등록1차)	주일저녁 강사	3,000,000	
	3월 30일 (집중등록2차)	주일저녁 강사	3,000,000	
	소계		7,750,000	
총계			15,150,000	

라. 예산

전도 축제를 위한 예산안이 편성은 아래 <표 10>에서 볼 수 있다. 예산안이 세밀하게 잘 편성되어 있어야 재정지원이 필요한 곳에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전체 예산에서 각 항목별로 필요한 곳에 직정예산과 지출예산이 어느 정도 맞아져야 결산 때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된다.

마. 결과

2010년도 전도축제를 통한 새 가족 등록 현황을 <표 11>에서 볼 수 있듯이, 각 교구별로 오이코스(전도대상자)를 작성하여 만남과 초청을 통하여 교회로 등록되어진 새 가족 등록 현황을 파악 할 수 있다.

<표 11> 2010년도 교구별 새 가족 등록현황

교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자진	합계
인원	66	42	137	61	102	94	134	94	70	144	64	137	145	110	160	1558

제 4 절 기타 전도 방법

광명교회는 지난 23년 동안 영혼구원에 대한 사명감으로 열정적으로 전도에 임하였다. 그 동기는 사랑과 순종이었다. 그리고 방법과 동원은 열심과 충성이었다. 본 절에서는 광명교회의 기타 전도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1. 축호 전도

축호 전도는 전도대상자가 친구, 친척, 가족, 네 이웃으로 일대일의 철저한 개인 관계전도이며 한번 관계 맺으면 전도카드에 이름을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며 꾸준한 관계를 맺고 전도해서 등록까지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전도물품을 공급해도 실질적인 열매까지 거둘 수 있다.

2. 아파트 전도

의정부시 주택 유형 및 점유형태 현황을 표로 담고 있는 <표 12>를 보면, 단독주택의 거주자는 30.5퍼센트, 아파트 거주자는 62.1퍼센트로 나타나 아파트 거주자가 단독주택 거주자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 의정부시 주택 유형 및 점유형태 현황

구분	주택유형			점유형태			
	단독주택	아파트	기타	자가	전세 (민간)	월세 (민간)	임대 (공공)
2013년도	30.5	62.1	7.4	56.5	24.5	17.7	1.3
<가구유형>							
비농가	30.5	62.1	7.4	56.4	24.6	17.7	1.3
농가	0.0	100.0	0.0	100.0	0.0	0.0	0.0
<가구원수>							
1인 가구	67.5	26.4	6.1	26.7	34.8	32.9	5.6
2인 가구	35.0	55.4	9.6	57.0	21.1	21.1	0.8
3인 가구	20.5	71.5	8.0	59.5	25.9	13.8	0.8
4인 가구	16.4	78.1	5.5	67.0	21.2	11.7	0.0
5인 이상	14.8	77.8	7.4	75.5	20.8	3.8	0.0
<주택유형>							
단독주택	-	-	-	27.2	29.9	38.5	4.3
아파트	-	-	-	71.4	21.1	7.5	0.0
기타	-	-	-	50.7	31.5	17.8	0.0
<점유형태>							
자가	14.7	78.7	6.6	-	-	-	-
전세	37.0	53.5	9.5	-	-	-	-
월세(민간)	66.3	26.3	7.4	-	-	-	-
임대(공공)	100.0	0.0	0.0	-	-	-	-
<주택규모>							
66㎡ 미만	36.6	52.2	11.2	41.5	30.6	25.8	2.1
66-99㎡	16.6	82.8	0.6	82.3	14.6	3.0	0.0
99㎡ 이상	47.7	47.7	4.5	76.2	11.9	11.9	0.0
<가구주연령>							
20-29세	66.7	19.0	14.3	9.5	38.1	52.4	0.0
30-39세	23.0	66.2	10.8	41.2	38.2	19.9	0.7
40-49세	20.0	73.3	6.7	56.5	24.7	18.1	0.7
50-59세	30.2	62.1	7.7	58.8	21.6	18.8	0.8
60세 이상	42.5	51.7	5.8	65.1	19.4	12.8	2.8

그래서 교회는 아파트전도에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여기서 아파트 전도 방법에는 동네 지역 및 아파트 단지를 책임지는 사령관, 아파트 한 동을 책임지는 동대장, 그리고 아파트 한 개의 라인을 책임지는 대장으로 나뉘서 년 초에 임명을 수여하므로 전도의 대한 도전과 책임감을 부여한다. 그리고 각 교구는 지역별로 지정된 아파트를 세밀하게 파악한다. 아파트 세대수와 맞추어 교구 일꾼을 파송하여 빠른 시일 안에 이사 오는 데로 전체세대를 제치 있게 다 훑으면서 파악하여 가능자를 건져낸다. 그리고 3개월 정도 전도하면서 교구식구들이 관계 맺어 놓은 자들을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

3. 노방전도

노방전도는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전도방법의 하나였고 이 전도방법은 선교 초기의 강력한 전도운동이었다. 모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어깨띠를 두르고 피켓을 들고 대, 소로에 나서서 전도지를 나누며 전도하는 것이다. 이 전도방법은 일종의 전도지를 통하여 교회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이다. 불신자들에게 지역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소개함에 있어서 좋은 점이 있다.

4. 커피, 차 전도

커피, 차 전도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금융기관, 동사무소, 교차로, 학교 앞 등에서 준비된 커피, 차를 대접하면서 교회를 소개하거나 복음을 제시하는 전도이다. 때로는 호박죽이나 죽을 만들어 교회 옆 중랑천과 등산로 입구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기도 한다.

5. 목걸이 전도(전도 특공대)

광명교회의 목걸이 전도는 전도 특공대와 같다. 목걸이라는 말은 목숨 걸고 전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일명 '목걸이 전도대'라고 말한다. 이들은 70인 전도 특공대로 구성되어 2-3명이 짝을 지어 함께 기도 한 후 어떤 지역이든, 어떤 사람이든 복음 증거를 위하여 훈련된 전도자들이다. 이들을 통하여 자신감이 없는 전도대원들에게 큰 동기를 부여해 주고 있고 많은 전도의 결심을 맺고 있다.

6. 외침 전도

외침전도는 일종의 찬양 전도이다. 매주일 오후 2시에 준비된 찬양을 정해진 장소에서 찬양과 악기를 동원하여 불신자들에게 음악과 찬양을 들려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이다. 외침 전도는 오늘날 쉽지 않는 전도 방법 중의 하나이다. 특정 장소에서 악기를 사용하거나 큰 소리를 내는 것은 타인들에게 불편함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도를 많이 하고 시행하는 전도 중의 하나이다.

7. 동서남북 전도

동서남북 전도는 광명교회의 전 교인이 동시에 하는 전도이다. 이 전도는 주일날 3부 예배를 드린 후 모든 교구 성도들이 자신들의 지역으로 동서남북 흩어져 전도하는 방법이다. 이 전도는 연중 2회 시행한다. 상반기에는 부활절에 계란을 가지고 지역 별로 흩어져 부활을 축하하며 전도하는 것이다. 하반기에는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에 준비된 기념품이나 전도물품을 가지고 동서남북 흩어져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전도이다.

8. 병원 전도

병원전도는 지정된 병원의 환우들을 찾아가 그리스도의 말씀 위로하며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전도이다. 병원전도는 궁핍의 마음이 더욱 필요한 전도이다. 보통 병원 전도대원들은 요양 보호사 자격증이나 호스피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헌신적인 사랑에 감동받은 환우와 가족들이 전도되고 있다.

9. 총동원 전도

광명교회는 개척초기부터 총동원 전도로 부흥한 교회이다. 올해로 23주년을 맞이하는 교회가 되었다. 총동원 전도는 매년 주제는 달랐다. 그러나 년 2회로 상반기, 하반기로 총동원 전도가 시행되었다. 지난 23년 동안 그때마다 전도의 방법은 달라지만, 그 내용은 성경적인 부흥을 추구하는 전도였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를 추구하는 한 영혼을 대한 사랑의 전도였다.

제 5 절 광명교회 전도의 문제 분석

교회는 생명체인 동시에 조직이다.⁷⁶⁾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은 생명체이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체이다. 생명력이 있는 열심이 충만한 교회는 물론 기도, 성령,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자연히 전도활동이 일어나게 된다. 전도는 교회 부흥의 수단이다. 그러나 교회는 전도로서 부흥된다.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서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전도에 관심이 없거나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바른 교회가 아니다. 광명교회는 전도중심의 교회로 전도사역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한 교회이다. 그러나 몇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1. 전문적인 전도 담당자 부재

모든 모임이나 일에는 인도자와 책임자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도자나 책임자는 전문가일수록 좋다. 왜냐하면 실수나 실패가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 일에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한 사람이면 더욱 좋을 것이다. 전도도 마찬가지이다. 매년 책임자가 달라진다는 것은 전도에 대한 전략적인 면에 있어서도 상승효과를 가져 올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광명교회는 전도담당 교역자가 자주 바뀐다는 것이다. 전도담당 교역자가 전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전도 일정에 맞게 진행한다.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한 해 동안 진행한 모든 사항들을 마지막에는 평가회를 하게 된다. 부족한 점과 잘못된 점은 수정 보완하게 된다. 그러나 교역자가 바뀌 버리면 모든 전도 전략도 담당 교역자의 경험과 생각에 따라가 다르게 진행되어 버린다. 지난 해 수정 보완된 전도는 전혀 활용이 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역자에 따라 전도 전략이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었다.

2. 전도 자료 정리의 부재

전도에 관한 자료들은 현재 개 교회마다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시중 서점에 많이 나와 있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타 교회 프로그램이나 자료들을 도입하다가 어

76) 명성훈, *21세기 전도와 양육* (서울: 서울말씀사, 1996), 134.

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체질과 토양에 맞는 전도 계획을 세워 진행해야 한다. 광명교회는 전도담당 교역자가 자주 바뀐다는 것이다. 담당자가 자주 바뀌다 보면 일 년 동안 계획하고 진행한 모든 자료들도 다음 교역에게 넘겨 않고 남아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전도에 관한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전도 계획들을 문서화시켜 정리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임기응변식으로 생각나는 대로 일을 진행하는 경우나, 체계적인 방법과 조직적으로 전도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는 경우를 보았다. 본 연구자는 2010년도 전도국장을 맡으면서 지난 과거의 전도에 관한 문서나 체계적인 전도 계획서를 받아 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새로운 전도 계획을 세워 진행했던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일 년 동안 정리된 자료를 다음 담당자에게 넘겨 줄 수 있었다.

3. 전도 후의 정착 관리 부재

나무만 보면 실패한다. 숲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전도는 그때마다 단순히 남들이 해서 교인이 많이 모이니까 하는 것이 아니다. 전도를 위한 기초에서 메시지와 기도가 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 선포되어야 한다.⁷⁷⁾ 그리고 모든 성도가 스스로 새 신자를 영태하도록 전도 집회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전도자들의 열심히 세 신자들이 교회로 등록되어 진다. 그리고 새 신자들이 교회로 잘 정착되어야 한다. 그런데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교회는 새 신자들이 교회로 등록되어 질 때 그들이 잘 정착 할 수 있는 양육 및 훈련과 정착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기본적인 새신자자를 위한 4주 교육은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 다음 성장과 정착이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교구에 소속되어 목장 공동체에 들어와야 한다. 건강한 소그룹인 목장 공동체가 준비되어 있을 때는 어떠한 새신자라도 소그룹인 목장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에 정착 할 수 있다. 그러나 훈련되어 있지 않는 작은 목자(리더)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소그룹인 목장으로 인하여 새 신자들이 정착과 관리가 되지 않을 때 교회는 부흥 될 수 없는 것이

77) 김재현, *이것이 21세기 전도운동이다* (서울: 두돌비서원, 1995), 23.

다. 교회는 보다 훈련된 작은 목자(리더)로 통하여 건강한 소그룹 목장 공동체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새 신자들이 말씀과 훈련을 통하여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양육이 필요한 것이다.

4. 전도 훈련의 부재

전도는 목사가 직접 현장에서 모범을 보이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그 다음 방법으로 전도폭발, 예수 전도단, 이슬비 전도학교, 대학생 선교회, 어린이 전도협회 등에 위탁시켜 훈련 할 수도 있다. 문제는 얼마나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활동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다. 대부분 전도훈련이나 전도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한 것은 광명교회 전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다.

전도를 전문 사역으로 하는 부교역자를 두지 못한 것과 지속적 훈련과 활동을 하지 못하고 일시적 운동으로 그치게 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특별히 전도특공대는 수시로 생겼지만 더위와 추위가 오면 방학을 하고 그 다음에는 잊어버리고 몇 년씩 지나가 버린 것이다. 전도는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놓쳐버린 것이다. 이것은 전문적인 전도 담당 교역자를 통하여 전도 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도의 지속성이 결여 되는 것이다. 전도는 항상 언제든지 진행되어야 한다. 절대로 행사용으로 대체되어서는 안 된다.

5. 편중된 총동원 전도

교회전도 프로그램은 목회자 자신의 스타일이나 선호도, 은사 훈련 받은 것 효과 등을 종합하고 성경적이고 교회적으로 이상이 없는 가도 점검 되어져야 한다. 총동원 전도는 많은 교인들이 전도에 동참하고 열심히 기도한 것은 좋은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히 총동원 전도 운동의 문제는 하나의 행사에 너무 전력을 쏟으므로 오히려 총동원 전도주일 이후에 교회 흐름이 깨어지고 허탈감이 늘면서 무력증에 빠지는 현상이 왔고 집단이나 단체를 동원 선물을 받아가게 하고 너무 많은 경비가 들어가는 것 결신자와 참여자와의 유대관계가 지속되지 못한 점이다. 교회가 상업적으로 보인 점 등은 총동원 전도운동이 가져온 큰 부정적인 문제이다. 특별히 총동원 주일에 약 1,000명 새 신자가 등록했다가 그 다음 주일에는 300명도 나오지 않는다면 분명 문제

가 있는 전도운동임이 틀림없다. 목회자의 목회철학이나 교회에 맞는 전도운동으로 수정 보완 하여 지속화 시켜야 한다.

여기에서 본 연구자는 전 성도가 전도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었고 실제로 양적인 성장을 어느 정도 가져왔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은 더 많다고도 볼 수 있다. 경쟁적 과시적으로 추진하는 행사가 되므로 지역사회에 거룩성과 진실성의 교회의 이미지보다 상업적이고 시끄러운 이미지를 보여준 면도 있다. 목표를 무리하게 설정하였다. 한번만 교회에 와도 주님이 기억해서 끝내 부르시고 구원하신다는 생각이 과연 한번 나와서 복잡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오히려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마저도 막아버리는 일은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일 다른 교회에서 기념품을 받기 위해 많이 왔다. 친한 이웃교인만 빼앗아 간다는 시비마저 일어날 소지가 많다. 전도하는 것을 막고 반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오히려 반전도 현상이 계속 일어난다면 성경적인 전도 운동으로 신중하게 적응하며 발전시켜가야 한다.

제 6 절 광명교회 전도의 새로운 방향성

본 절에서는 광명교회 전도의 새로운 방향성으로 지속적인 전도훈련과 함께 지속적인 전도의 후속 관리 문제가 제시될 것이다.

1. 지속적인 전도훈련

광명교회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총력전도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총력전도운동의 가장 핵심은 전도하는 일꾼을 길러 내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교회의 제자훈련사역에 일대 큰 혁신을 가진 획기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이해하고 있는 제자훈련이란 신자들을 그저 단계별로 성경공부를 시키는 것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성경지식이 늘어난 신자는 많이 있지만 예수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9-20 절의 말씀을 지켜 전도하고 제자 삼는 평신도 사역자는 많이 생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가 광명교회의 사역과정 중에서 느끼게 된 것은 교회의 본질에 대한 성도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회가 어떤 곳이며,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교육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인들이나 직분자들이 삶에 우선순위를 영똥한 곳에 투자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교회의 절대적인 사명을 “전도”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사명을 성도들이 자각하고 각성하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성도들이 인지하고 있다면 기초적인 전도훈련에서 현장전도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또 이미 전도훈련을 받은 평신도 전도자들에게 정기적인 세미나와 훈련을 구체적으로 실시해서 더욱 전도에 대한 사명감과 기술을 연마하게 한다. 전도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다.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년 중 행사로 전도 축제를 통하여 성도들을 전도로 이끌어 가고 있다. 이것은 전도에 대한 사명과 함께 훈련되어 있는 전도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교회는 전도자들이 준비되어 있는 전도의 사명자들로 넘쳐 나야 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보자 하는 것은 철학도 없이, 또한 기초가 될 만한 신학도 없이 무분별하게 전도프로그램을 도입했던 것도 반성해야한다. 전도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므로 어느 한 가지만 고집할 수 없다. 또 선교단체나 외국교회에서 성공했던 방법이라고 우리교회에 그대로 적용한다고 해서 성공을 보장 할 수 없다. 검증도 없이 충분한 연구나 이해 없이 교회에 급히 이식시키려다 실패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았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전도훈련을 실시하되 담임 목사나 전도 담당 교역자가 철저하게 연구하고 임상실험을 한 후, 그 결과들을 분석하여 교회에 정착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서서히 접목시킬 때 자신의 은사에 맞는 전도 훈련을 받아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 지속적인 전도훈련을 위해서는 항상 교회의 전체적인 마음 받이 옥도와 같이 되어야 한다. 광명교회는 이를 위하여 언제나 전도하기 전에 기도회를 갖는다. ‘전교인 여리고 작전’, ‘전 교인 총진군 새벽기도’, ‘위대한 부흥 10만 시간 기도 신 모세작전’ 등등의 전도를 위한 기도 대행진을 한다. 이것은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셔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기도를 통하여 전 성도들이 기도

의 능력을 받아 담대하게 나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하나 되어 질 수 있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 발이 옥토가 되어 복음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2. 지속적인 전도의 후속관리

전도대회 결과에 따른 철저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실시 될 때 전도운동은 지속되며 새 신자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로 등록신자의 심방과 새 신자 교육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심방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새신자의 신앙파악과 영적상태를 진단 할 수 있는 것이다. 새 신자 교육도 등록과 함께 가능한 바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했을 때 교육이 진행 될 때 교회생활에 어려움이 느끼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의 후속 양육이 준비되어 신앙을 배워가는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 새 신자들이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기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체계적인 양육을 통하여 준비된 일꾼을 만들어 내는 것도 또 하나의 사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교회에 왔으나 결신하지 않는 분들, 즉 방문자들에게는 지속적으로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전도 잔치를 통하여 많은 새 신자들이 교회로 등록하거나 방문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보통의 새 신자가 교회로 등록하면 그들을 관리하거나 교육하기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일회적 방문자들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내야 한다. 홍보물을 보내고 다음 초청 잔치나 교회 예배에 초대하는 일이 중요하다.

셋째로 중요한 것은 새 신자들이 훈련과 교육을 통하여 신앙을 배우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 그들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배생활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교회에 소속되어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새 신자들이 교회에 등록되어 예배만 드리는 것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다. 새 신자들은 필히, 교회 공동체에 구성원 되어야 한다. 교구에 소속되어 각기 소그룹 모임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이 소그룹 목장 모임을 통하여 신앙의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다. 기쁨과 즐거움을 나뉘며 어려움과 슬픔은 격려하며 서로의 집을 함께 지는 신앙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목장 소그룹이 건강해야 한다. 목장이 건강하면 목장에 참여하는 새 신자들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다. 목자의 영적수준과 목장의 모임의 활성화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는 언제든지 새 신자들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온전한 신앙인으로 세워 갈 수 있을 것이다.

제 6 장 결 론

지금까지 본 연구자는 광명교회 부교역자로 사역하면서 담임목사인 최남수목사의 목회철학과 비전을 통하여 어떻게 교회가 전도를 통하여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여 왔는가에 대한 전도방법을 고찰해 보았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명령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다. 이 사명을 다하려는 광명교회의 최대 몸부림이 바로 전도로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도의 목표는 영혼구원이다. 광명교회는 지난 23년 동안 전도 집회를 통하여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여 왔다. 광명교회는 전도 집회를 매년 2회 이상 실시하였다. 오직,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명교회 위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동안 전도를 통하여 얻게 된 유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 중 첫째로, 전도를 통하여 성도들의 질적 수준이 놀랍게 향상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서, 각 개인의 신앙의 성장이 있었다는 것이다. 성도들 가운데에는 오래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교회의 직분자들 중에는 세월이 가면서 열정이 식고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신앙생활이 종교적인 행위에 머물러 있어 하나의 타성이 되어버린 것이다. 전도는 이러한 성도들에게 인간창조의 목적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다. 교회는 우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다시 듣게 함으로써 모든 성도들에게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주님을 향한 복음의 열정을 갖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으로 무장하여 다시금 불을 지피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두 번째는 전도를 통하여 교회가 양적인 성장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진정한 복음으로 무장한 교회가 교회되기만 하면 교회 성장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였다. 교회를 하나의 조직이 아닌 유기체에 비유한다. 그것은 교회와 몸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유사성 때문이다. 우리의 몸이 성장하려면 무엇보다도 모든 지체가 건강해야 하는 것이다. 충분한 영양분을 골고루 잘 섭취하고 적당한 운동을 통하여 건강한 몸이 유지될 수 있다. 또한 생명체는 또 다른 생명체를 탄생시킬 때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세포들의 끊임없는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럴 때 몸은 성장 할 수 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하고 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무엇보다 건강해야 한다. 교회의 건강은 균형 잡힌 성장을 말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광명교회는 지난 과거 23년 동안 모든 성도들에게 전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동시에 증인된 삶을 통하여 교회가 양적인 성장을 통하여 큰 부흥을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전도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이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도가 갖는 의미와 목적 그리고 그 유익을 깨닫고 힘써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그런데 그 명령을 순종함에 있어 불성실하게 하거나 대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신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도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자 하나님의 일(눅4:43, 요6:29, 30)이기 때문이다. 이를 광명교회는 23년 동안 수많은 전도방법들이 시도되었으며 지금도 계속 개발되고 있다. 오늘날 침체일로 속에 있는 한국교회에서도 전도에 대한 수많은 방법론들이 제시되고 있다. 어떻게 하든지 한국교회가 부흥을 위해 다양한 전도방법을 수용하고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전도 방법은 없다. 따라서 교회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수많은 전도방법들이 시중에 나오고 있다. 이 방법들은 각 지역과 주변 환경, 그리고 개교회의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시켜 나가야 한다. 물론 복음을 상황에 맞도록 적용하는 과정에서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음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교회가 너무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도에 치중하다보면 당장 가시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전도의 본래의 목적을 상실할 수 있다. 전도는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계속되어야 할 사명이다. 단기적인 계획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광명 교회는 전도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전도에 대

한 바른 동기와 목적의식을 갖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한다. 광명교회도 지금까지 전도를 영혼사랑과 지상명령에 대한 순종,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되어 왔었다. 전도를 진행하다가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다. 그때마다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와 초대교회의 모범을 따라 한 영혼의 소중함을 인지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복음전도를 진행하였다.

무엇보다 전도는 전도자의 삶이 하나의 전도를 위한 생활방식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다양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전도를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 특별한 때에만 전도자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불신 영혼을 교회에 초청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될 수 있는 단계까지 교회는 책임감 있게 양육하고 훈련을 해야 한다. 광명교회는 이를 위하여 예배, 양육, 교제 등 새 신자들이 교회에 잘 정착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보다 잘 준비 되어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광명 교회는 보다 조직적이고 꾸준한 전도 활동을 위해 전도대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기존의 복음 전도의 장단점을 보완한다면 전도의 효과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전도 방법을 한 가지만 고집하기보다는 일단 최선을 다해 교회여건과 주변 상황에 맞는 전도방법들을 연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양한 전도방법들을 가다듬어 광명교회에 맞는 전도방법으로 정착시켜 지속적으로 적용한다면 분명히 더 큰 전도의 역사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문 목회자나 전도 담당 책임자를 세워 적극적인 전도에 관한 모범을 만들어 간다면 교회 영혼구원의 방주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족하나마 본 논문이 전도를 통하여 교회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교회 앞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본 연구를 맺는다.

부록 1

광명교회 기도 대행진

연도	기도 내용 및 날짜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죽특훈 40일 철야기도 및 특별새벽기도(1. 4-2. 12) * 전교인 3일 금식기도(3. 29-31) * 하반기 3주간 특별새벽기도(7. 5-23) * 2010 추수 특별새벽기도(11. 8-19)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죽특훈 특별 새벽기도(1. 3-14) * 전교인 40일 다니엘의 하루 세 번 기도(3. 14-4. 23) * 제1차 120명 능력기도(5. 1-6. 10) * 제2차 120명 능력기도(6. 17-7. 22) * ASK77 기도-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7. 3-2014. 3. 28) * 전교인 특별새벽기도(10. 17-28)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일 '말씀대행진'-70일 특별새벽기도 및 철야기도회(1. 1-3. 10) * 전교인 3일 금식기도(6. 20-22) * 70개국 세계기도자학교를 위한 제1차 3천명 기도회(6. 24) * 70개국 세계기도자학교를 위한 제2차 3천명 기도회(7. 29) * 민족교회를 위한 700일 인앤아웃 기도회(2112. 8. 6-2014. 7. 7) * 70개국 세계기도자학교를 위한 제3차 3천명 기도회(8. 26) * 교구별 릴레이 중보기도회(11. 5-23) * 70개국 세계기도자학교를 위한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11. 19-23)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장로. 안수집사 120명 - 10일 철야기도회(2. 3-13) * 약속기도 제2차 교구별24시간 강단 릴레이기도(2. 23-3. 8) *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3. 25-29) * 약속기도 제3차 교구별24시간 강단 릴레이기도(4. 8-19) * 약속기도 제4차 강단 철야기도(5. 1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속기도 제5차 맥추감사기도(6. 28-7.7) * 대추수 축복기도 All in One (7. 7-2014. 7. 6) * 약속기도 제7차 교구별 강단 철야기도(9. 6-15) * 대추수를 위한 제1차 3일 금식기도성회(12. 2-4)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추수를 위한 제2차 금식기도성회(1. 1-3) * 대추수를 위한 제3차 금식기도성회(2. 3-6) * 대수추를 위한 제4차 금식기도성회(3. 3-6) * 대수추를 위한 제5차 금식기도성회(3. 31-4.2) * 대수추를 위한 제6차 금식기도성회(4. 28-5.2) * 대수추를 위한 제7차 금식기도성회(6. 2-4) * 헌당을 위한 120명 제물기도(6. 9-7.4) <li style="padding-left: 20px;">* 교회 지킴이 강단기도(8. 4-22) <li style="padding-left: 20px;">* 전교인 특별새벽기도(9. 1-6) * 제1차 전교인 일곱 번 특별새벽기도(11. 3-14) * 제2차 전교인 일곱 번 특별새벽기도(12. 8-19)

부록 2

예수꾼 만들기

NO	채질 개선(1권)	개념 탈피(2권)	낙타 무릎(3권)
1	다 버려라(마 4:8-22)	복의 개념(마 5:3-12)	끌방기도(마 6:5-8)
2	시키는대로 하라 (요 2:1-11)	안식일의 개념 (마 12:1-14)	이렇게 기도하라(주기도) (마 6:9-13)
3	거듭나라 (요 3:1-8)	성전의 개념을 바꾸라 (마 21:12-16)	3중적 간구 (마 7:7-12)
4	명예욕을 버려라 (마 6:1-4)	율법의 개념을 바꾸라 (막 12:28-34)	끈질긴 기도 (눅 18:1-8)
5	재물욕을 버려라 (마 6:19-24)	용서의 개념을 바꾸라 (마 18:21-35)	가슴을 치는 기도 (눅 18:9-13)
6	권세욕을 버려라 (마 20:20-28)	이웃의 개념을 바꾸라 (눅 10:29-37)	중보기도 (요 17:6-19)
7	필요한 존재라 되어라 (마 5:13-16)	예배의 개념을 바꾸라 (요 4:20-26)	낙타무릎 (눅 22:39-46)

NO	절대 믿음(4권)	영혼 사랑(5권)	일사 각오(6권)
1	지붕을 뜯어서라도 (막 2:1-12)	천국 중개인 (마 23:13-15)	예수꾼의 각오 (눅 9:23-27)
2	말씀만 하셔도 (눅 7:2-10)	하나라도 실족케 말라 (마 18:5-10)	하나님의 일을 먼저 (눅 9:57-62)
3	옷만 만져도 (막 5:25-34)	돈주고 살 수없는 영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눅 12:16-21)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마 6:25-34)

4	부스리기라도 종사오니 (마 15:21-28)	간음한 여인의 영혼까지 (요 8:1-11)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눅 6:27-38)
5	할 수 있거든 (막 9:14-29)	세리의 영혼까지 (눅 19:1-10)	예수꾼의 모본 (요 13:1-15)
6	가서 씻으니(요9:1-12)	참 목자(요 10:9-15)	사명과 권능(16:12-18)
7	절대 믿음 (요 11:38-44)	잔치를 베풀어라! (눅 15:11-23)	일사각오 (요 12:23-28)

NO	거저 전도(7권)	종말적 삶(8권)	영혼진통(9권)
1	가.포.눈.눌(전도대장) (눅 4:16-19)	천국 중개인 (마 23:13-15)	설익은 예수꾼 (마 26:47-56) (눅 22:5)
2	천국을 채우라 (요 4:6-19)	내용 있는 신앙 (마 23:23-24)	수제자의 부인 (마 26:69-75)
3	참된 전도자의 삶 (마 12:15-21)	예수 충만 (마 23:25-28)	육체적 고통 (마 27:26-31)
4	거저전도 (마10:5-15)	핍박을 각오하라 (마24:9-14)	십자가에 못 박히심 (눅 23:26-34)
5	거저전도단의 보고회 (눅10:17-20)	종말준비 (마 25:14-30)	마지막 구령운동 (눅 23:39-43)
6	지옥에 갔다 온 자의 심정으로(눅 16:27-31)	심판준비 (마 25:31-46)	영혼의 진통 (요 19:28-30)
7	땅 끝까지(마 28:18-20)	몽땅 드림(마 26:6-13)	무덤에 장사되심 (요 19:39-42)

부록 3

광명교회 23년 전도행진

날짜	행사 내용	표어
1992. 5. 3	새 생명 전도 축제	30명 전도 못하면 의정부를 떠나라!
1993. 5. 2	새 생명 전도축제	총동원 전도축제
1993. 11. 1	111총동원 전도축제	300명 성도를 주시옵소서!
1994. 5. 22	522총동원 전도축제	나도 한명 전도하자!
1994. 11. 6	116총동원 전도축제	의정부 26만을 주시옵소서!
1996. 5. 5	어린이 전도축제	어린이 천명을 예수님께로!
1997. 4. 27	427어린이 친구초청	427 어린이 친구초청 잔치(와보라!)
1998. 4. 12	새 생명전도축제	예수사랑 큰 잔치
1998. 11. 8	118총동원 전도축제	행복한 사람들을 위한 축제
1999. 7. 11	70인 전도 발대식	예수사랑 전도 특공대
1999. 11. 7	117태신자 전도축제	태신자 초청 천국잔치
2000. 6. 10	예수사랑 큰 잔치	5,000명 초청! 예수사랑 큰 잔치
2001. 11. 11	11.11쌍둥이Day	의정부35만을 누가?
2002. 5. 12~	제1차 아이러브 의정부	의정부37만 영혼만나기. 의정부 땅밋기
~ 9. 13	제1차 아이러브 의정부	도시를 추수하는 광명행진
2003. 6. 27	오이코스 찬양축제	오이코스 찬양축제
2003. 9. 21	제2차 아이러브 의정부	도시를 추수하라!

2003. 11. 10	광명 새 생명 축제	1,000명의 성도를 하나님께로!
2004. 4. 19	오이코스 전도축제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자!
2005. 4. 24	추수2005! 330생명전도	7,000명을 한자리에!
2006. 5. 21	521 로즈데이	3만 명 전도-새로운 축복이 시작된다!
2007. 4. 8	10만 영혼 전도발대식	전도 특공대 발대식
2007. 5. 27	블레싱 데이 전도축제	10만 영혼을 주시옵소서!
2008. 3. 23	비전120	120만 영혼 전도발대식
2008. 4. 29	429 블레싱/429 전도축제	120만 영혼에게 복음을 듣게 하라!
2008. 9. 21	아이러브 전도 발대식	의정부를 복음으로 정복하자!
2009. 5. 9	5천 어린이 전도축제	어린이 5천명을 주시옵소서!
2009. 5. 31	1만 어린양 축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
2010. 5. 30	1만 어린양 목장축제	1만 명 오이코스를 초청하자!
2010. 10. 10	의정부3만 복음화집회	새로운 출발2010, 의정부를 사랑합니다!
2011. 4. 17	민들레 전도축제	의정부에 복음의 향기를 날리자!
2011. 10. 30	ACT88기쁨충만 생명축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행 8:8)
2012. 4. 29	429 에스 데이	의정부 부흥을 위해 총력 전도하라!
2012. 11. 4	114 VIP 초청축제	당신이 최고입니다!
2013. 5. 19	519알사탕 한아름전도축제	120만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자!
2013. 10. 20	1020알사탕 대 추수 전도축제	120만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자!
2014. 5.25- 6.1	패밀리 데이((Family Day)	2만 영혼, 세바람 전도축제!

참고 문헌

1. 국내 서적

- 광명교회. “도전하라”. 광명교회 20주년 역사화보집. 서울: 크리에디브, 2012.
- 권성수. “한국교회의 성장정체와 대안.” *신학지남* (1998 가을).
- 김선일. *교회를 위한 전도가이드*. 서울: 세 세대 출판사, 2012.
- _____. *전도의 유산 오래된 복음의 미래*. S.F.C 출판부, 2014.
- 김세윤. “예수님의 하나님나라 선포와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실존.” *신학지남* (1989 겨울).
- 김연택. *21세기 건강한 교회*. 서울: 도서출판 제자, 1997.
- 김영욱. *21세기 전도전략*.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
- 김재현. *이것이 21세기 전도운동이다*. 서울: 두돌비서원, 1995.
- 나겸일. *전도집중 교회로 만들라*. 서울: 규장문화사, 2001.
- 명성훈. *21세기 전도와 양육*. 서울: 서울말씀사, 1996.
- 문석호. “현대기독교와 영성.” *신학지남* (2004 가을).
- 박영호. *개인전도 핸드북*.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83.
- 박윤성. *수영로교회 소그룹 이야기*. 서울: 기독지혜사, 2005.
- 박은규. “한국교회 유형분석.” *기독교사상*. 1996년 11월호.
- 송귀옥. *개혁주의 기도학*. 서울: 도서출판 크리폼, 1999.
- 오성춘. *영성훈련의 실제*. 서울: 성지출판사, 1992.
-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87.
- 의정부시 의정부문화원. *사진으로 읽는 의정부시사*. 의정부: 의정부시 편찬위원회, 2014.
- 이상만. *오이코스 전도폭발*. 서울: 기독신문사, 2001.
- 이인철. “An Effective Evangelism Strategy for Building up a Healthy Churc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Podowon Church.”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0.

- 이학준. *한국교회 패러다임을 바꿔야 산다*. 서울: 새 물결 플러스, 2011.
- 정필도.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서울: 두란노서원, 2005.
- _____. "Dynamics of Sooyoungro Church Growth: A Case Study." D.min. diss.,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2006.
- 최남수. *기도자 학교*. 의정부: 광명교회, 2011.
- 최윤식, 최현식.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2*.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5.
- 최홍준. *잡자는 교회를 깨운다*. 서울: 규장문화사, 1998.

2. 번역 서적

- Autrey, C. E. *기본 전도학 (Basic Evangelism)*. 정진황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65.
- Baxter, Richar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한 목회자가 되라 (The Ministry We Need)*. 서원교 역. 서울: 나침판, 1998.
- _____. *현대인을 위한 참된 목자 (Reformed Pastor)*. 고신석 역. 서울: 프리셋트선교회, 2011.
- Bounds, E. M. *기도의 능력(Power through Prayer)*. 이정윤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2.
- Calvin, John. *칼빈의 경건(Devotion of Calvin)*. 이혁기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사, 1984.
- Coleman, Robert E. *위대한 지상명령(The Great Commission Lifestyle)*. 하정완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94.
- Cox, Harve. *세속도시 (The Secular City)*. 구덕관 외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 Dever, Mark .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 (Nine Marks of a Healthy Church)*. 이용중 역. 서울: 부흥과 개혁, 2007.
- Eims, LeRoy. *그리스도인 성장의 열쇠(What Every Christian Should Know about Growing)*. 네비게이토 출판사 역. 서울: 네비게이토 출판사, 2000.
- Green, Michael. *초대교회의 복음전도 (Evangelism in the Early Church)*.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 선교회, 1988.

- _____. *현대 전도학 (Evangelism through the Local Church)*.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2007.
- Henrichsen, Walter A. *훈련으로 되는 제자 (Studying,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Bible)*. 네비게이트 역. 서울: 네비게이트선교회, 1980.
- Hybels, Bill. *월로우크릭 커뮤니티 교회 (Rediscovering Church)*. 김성웅 역. 서울: 두란노, 1997.
- _____.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The God You're Looking For)*. 한기웅 역. 서울: 두란노, 1998.
- Kuiper, R. B. *전도신학 (God Centered Evangelism)*. 박수준 역. 서울: 소망사, 1989.
- McGavran, Donald A. *교회성장의 이해 (Understanding Church Growth)*. 한국복음주의 선교학회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 McIntosh, Gary L. *성경적 교회성장 (Biblical Church Growth)*. 이재강 역. 서울: 크리스찬 출판사, 2004.
- Neighbour Jr., Ralph W. *셀목회 지침서 (Where Do We Go From Here?: a Guidebook for Cell Group Churches)*. 정진우 역. 서울: NCD, 2000.
- Packer, James. *복음전도란 무엇인가 (Evangelism & The Sovereignty of God)*. 조계광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7.
- _____.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ing God)*. 서분강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0.
- Peterson, Eugene H. *성공주의 목회 신화를 포기하라 (Under the Unpredictable Plant)*. 차성구 역. 서울: 좋은 씨앗, 2002.
- Porter, Douglas. *효과적인 복음전도 이렇게 하라 (How to Develop and Use, The Gift of Evangelism)*. 도서출판 프리셋트 역. 서울: 도서출판 프리셋트, 1996.
- Scarborough, L. R. *전도학 개론 (With Christ After the Lost)*. 이명희 역. 서울: 보이 스사, 1986.
- Smith, Oswald J. *구령의 열정 (The Passion For Souls)*. 박광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7.
- Smith, Ron. *개인 전도의 입문 (The A B C of Personal Evangelism)*. 권명달 역. 서울: 보이 스사, 1982.

Snyder, Howard A. *참으로 해방된 교회 (Liberating the Church)*. 권영석 역. 서울: IVP, 2006.

Stott, John R. W. *예수님과 사도들의 메시지(Basic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이남종 역. 서울: 무림출판사, 1991.

Towns, E. M., et al. *교회성장 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Evaluating the Church Growth Movement)*. 김석원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9.

Williamson, G. I.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해 (The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for Study Classes)*. 유태화 역. 서울: 크리스찬 출판사, 2006.

3. 외국 서적

Powell, Paul W. *The Nuts and Bolts of Church Growth*. Nashville: Broadman Press, 1982.

Vita of
Tae Gun Kim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of YoungSan Presbyterian Church, Incheon

Personal Data:

Birthdate: June 19, 1970
 Birthplace: changwon, South Korea
 Marital Status: Married to Shinhye Kim in Octobe 28, 2000
 with two child, Subin and Sebin
 Home Address: 868 Gyeongin-ro, Bupung-ku, Incheon South
 Korea Post code 403-831
 Denomination: The General Assembly of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Ordained: October 14, 2003

Education:

B. A.: Kosin University, Busan, 1999
 M. Div.: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Seoul, 2002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15

Personal Experience:

3/2015 to present: Senior Pastor
 of YoungSan Presbyterian Church, Incheon
 1/2009 to 2/2015: Assistant Pastor
 of KwangMyung Presbyterian Church,
 Uijeongbu
 12/1999 to 12/2008: Assistant Pastor
 of Sooyoungro Presbyteian Church, Busan